朝鮮日報
夕刊
二十九日(土)
本紙夕刊十二面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林內閣倒潰는容易! 擧國內閣出現이問題

此를爲하야政民聯繫의緊密이必要

新指導理論으로邁進

【東京電話同盟】林內閣打倒의 政民聯繫懇親會終了後 繼續하야二十八日 午後三時부터 東京會館에서 一同이會合하야茶菓會를열고倒閣의 氣勢를올린後 午後五時散會하엿는데 席上、松野政友理事長의 人事가잇슨後 富田幸次郎、小久保喜七 川崎克 大口喜六等四氏는 번가러이러서서 現內閣의 退陣을要望한後 林內閣打倒는 容易하다 그러나問題는 倒閣後의 緊密한行動에잇다 兩黨의굿센結束만이 擧國一致內閣의 出現을招來하는唯一한길이다 라는旨를 强調하고 倒閣後의 聯繫確保에對하야 一同의注意를喚起한것은 兩黨聯繫今後의 推移를卜함에잇서서매우注目된다

【東京電話同盟】林內閣打倒의政民聯繫陣은 二十八日 兩黨懇親會를 비롯하야 마침내 倒閣具體化의 第一步를 내여드딋엿는데 同懇親會에서는 現下內外의非常時局에際하야 無經綸無抱負한 林內閣이留任하고잇는것은 國家를爲하야 深憂에不堪하는바이다 따러서 一時라도 速히그倒潰를 成就하야 이에代身하는眞實한 擧國一致內閣을 形成하야 時艱克服에當하지아니하면 아니된다 따러서 政民兩黨은 協調하야 倒閣에全力을 集中하고 一步前進하야 擧國一致內閣의 出現을爲하야 協力하지아니하면 아니된다는 議論을 極히熱心으로 力說하엿다 懇親會에 繼續하야 行할 第二段의 倒閣工作에關하야는 이指導理論이 强하게 影響될것이라고 觀測되며 兩黨聯繫가 順調로 進行하는境遇 今後의 政局安定에 對한重大한 鍵을 掌握한것이라 하야 그進行은 注目된다

總監今夜歸京

大邱神社國幣小社昇格奉告祭에 勅使로서參向한後 慶北道內를 視察中이엿든 大野政務總監은 二十九日 午後十時二十五分京城驛着列車로 歸城할豫定이다

"旣成政黨撲滅코 昭和維新斷行!"

政黨排擊의國民大會開催決定

昨日의右翼團體會合

【東京電話同盟】新日本國民同盟 生産黨 建國會 國粹大衆黨 純正維新共同靑年隊、大日本靑年黨等 右翼諸團體는 二十八日午後七時부터赤坂三會堂에서 全日本維新團體共同聖戰、政黨排擊同盟結成準備會를 開催하고 時局協議會의松本勇平氏를 座長으로하고 建國會의 赤尾敏氏를 司會者로하야 參加團體有志가 번가러演壇에올러가 旣成政黨撲滅、昭和維新斷行을 絶叫하고 宣言決議를 滿場一致로 決定하고 可及的速히 政黨排擊國民大會를 開催하기로 決定하고 同十時頃散會하엿다

英兵暴行事件 陳謝로서解決

【東京電話同盟】山海關의英國兵暴行事件에關하야 二十八日夜外務省에簡單한公電이 到着하엿는데 이에依하면 二十七日午後九時頃 山海關駐屯의 英國兵約二十名이 長城漁業公司를 突然襲擊投石하며 或은漁業用의 網을切斷하는等의 亂暴을 行하엿는데 이英國兵의暴行은 前日滿洲國人과의間에 조고마한 다툼이잇섯든바 그報復을 企圖한것으로觀測된다 이에對하야 滿洲國側은卽時 英國駐屯軍當局에 抗議한바 英國側에서도 그非를認定하고 陳謝의뜻을 表하엿슴으로 事件은 단번에解決되엿다

英新閣僚의面貌

【倫敦二十八日發同盟】볼드윈首相은 二十八日午後 後繼內閣의 組閣을完了 閣員名簿를 捧呈하엿는데 新內閣의面貌는 如左하다

首相 네빌·췜벌린
藏相 써-·존·싸이먼(現內相)
內相 써-·사뮤엘·호어(現海相)
商相 올리버-·스탠레-(現文相)
海相 다프·쿠-퍼-(現陸相)
陸相 호-어·베리샤(現運輸相)
國璽尙書 데라와-卿
保健相 써-·킹스레-·우드(留任)
文相 스탠레-·헤-프卿
運輸相 바깅博士
大法官 헤-르샴卿(留任)
外相 안소니-·이-든(留任)
空相 스-인튼卿
國防調整相 써-·토마스·인스키프(留任)
自治領相 말콤·맥도날드(留任)
植民相 윌리암·옴스비고아(留任)
勞働相 어네스트·뿌라운(留任)
土木相 써-·필립·사슨(現空軍次官)
農業相 윌리암·모리슨(留任)
印度事務相 제트란드卿
蘇格蘭相 월터-·에리오트(留任)

米合衆國艦隊 산프랜시스코入港

【桑港二十八日發同盟】아서·헤푸만提督麾下의 合衆國艦隊精銳百十一隻 空軍四百七十四臺는南太平洋上에서 月餘에亘하는 年次大演習을마추고 二十八日午前 堂堂히 桑港에入港하엿다 艦隊및空軍은 金門橋開通式에 參加할터인데 演習의成果에 對하야헤푸만提督은 말한다 演習은 一九三五年「作戰第十六號」를廢止한新規定 作戰第十八號에基하야 擧行되엿다 作戰第十八號의主題는 集約的이엿기때문에艦隊는 行動을 스피드、엄하야全能力으로 發揮할것이 必要하엿다 그러고 全員은熱意과 忍耐力을 最高限度까지 發揮하엿스며 就中空軍은 艦隊의要求를 最高度로 充足하얏고 操縱士의 忍耐力은特히 顯著하야 自己의 使命을充分히다하엿다 演習의 成果는진실로缺點이업서 莫若目下建造하는新艦隊들이 參加하엿더면 合衆國艦隊의 威力은 顯著히 强 할것이엿다

新內閣對外政策 前內閣方針踏襲

英內閣更迭과 外務當局의觀測

【東京電話同盟】볼드윈首相이挂冠하고 네빌·췜벌린氏가 新內閣을 組織하게되엿다는 報道에關하야 外務省에서는 아직詳細한 報告는 업스나 大體 今回政變에關하야 如左히 觀測한다 卽戴冠式終了後 볼드윈內閣의 辭職은 豫定的行動이오 何等다른意味는업다 歐洲의政情이 依然混沌한此際 新內閣의 對外政策은 列國의가장 注目되는바로 이든外相의 留任其他閣員의 面貌로 觀測하야 格別히 變化는업다 對歐對極東政策은 前內閣의政策을 踏襲할것이라보는것이 至當할것이다 日本에 關한注意點은 目下倫敦에서 進行中인 日英會談의 進行인데 英國은 日本과가티 日英兩國의親善關係增進을 希求하고잇슴으로 今後도 充分히 順調로 進捗될것이라고 期待된다

藏相、國防豫算의 合理的使用强調

【東京電話同盟】二十八日의 物價對策委員會散會後結城藏相은官邸에서 左와如히말하엿다 彥大豫算이 物價騰貴의 重要原因이란것은 疑心업는바임으로 今年의委員會에서도 豫算膨脹을 抑制할必要가잇다고頻頻히 主張하엿스나 그러라고해서 國防을 粗忽히 할수도 絶對로 업스므로 國防豫算의 合理的使用이란것이 必要할것이다 그에 對하야 五委員으로부터 軍需資料의 生産狀況低下하는同時에 規制檢査를緩和함이 어떠한가하는意見도잇스나 어것도 考究할點이라고思하다

軍需工場職工에 女子採用勸告

陸相、閣僚에注意

【東京電話同盟】杉山陸相은二十八日閣議에서 九州與西地方의軍需工業視察의 結果에對하야 詳細히說明하엿는데 그때各地의軍需工業의 實情을보매 各工場이모도主로 男子職工을 採用하면서도女子를 採用한데는 거의全無한狀態이라하여도조타 그런데如斯함은 有事之時에 男工은動員되여戰場에 나가지아니하면아니됨으로 戰時에 들어가는同時에熟練工을 일는結果가되니 平時에서 미리 이에 가추기 爲하야 女子를 軍需工場에 採用하야 그일을 修熟시켜 둘必要가잇다는 旨를力說하고 關係各閣僚의注意를喚起하엿다

人事·集會

▲車濬潭氏(朝鮮建物株式會社取締役) 新任人事次來社

▲小川好一氏(光化門郵便局長)昨日「鮮任人事次來社」云云의所報는事實錯誤이기訂正함

八面鋒

◇閣議에서는 特別議會對策을 協議하고, 政民兩黨은 內閣排擊을 決議하고 右翼小派는 政黨打破를 主張하고。

◇이것이 卄八日의 東京政界의 三色旋風。

◇三頭둥안이나 눈치만떠보든 世界經濟會議、結局은 成立할可望이업다고 米統領도 失望。

◇發意者自身부터 熱意가 적은노릇은 애당초부터 될 理가 萬無한일。

◇英內閣順順然하게 政權을 授受。

◇保守黨의勢力이 强大하다할가 老大國의政情이安定된것이라할가。

中國側强辯

大沽不法射擊事件을 事態急轉的으로重大化

【天津二十一日發同盟】大沽沿海에서 中國稅關監視船이 日本人漁船을 不法射擊한 事件에關하야 田中芝罘領事는 二十七日中國稅關長을 訪問하야 同不法射擊事件의 經緯를 詳細히說明하고 該監視船은 明白히芝罘稅關當下의배임을 指摘한데對하야稅關長은 어데까지 中國稅關船의行爲가 아니라고 强辯하야 會見은 드디여 決裂되엿는데 監視船의 不法射擊事件에 關하야먼저 天津海關은 自己管內의監視船의 行爲가아니라고 言明하고 只今또芝罘、海關도 否定함에이르럿스므로 日本側은 天津芝罘兩海關의 監視船을 相對로自衛手段을 取치아니치못하게되여 中國側海關의 逃避的態度는事態를 急轉的으로 重大化시킬것으로보인다

日本人共同經營의 中國人地主投獄

外人土地貸與禁止令嚴格施行

今後事態의推移注目

【天津卄九日發同盟】冀察政務委員會는 日本人의 經濟進出阻止의目的으로서 外國人에 對하야土地의 貸與를 禁止하고 違反者를 體刑에處한다는 旨의外人土地貸與禁止命令을 發表하엿스므로 果然이를 實行할지 그與否를注視하던바 依然天津縣政府는二十七日에 이르러 日中靑年共同耕作의 聖農園에 손을뻐처마침내同地居住中國人古恩富를 逮捕投獄하고마럿다 右聖農園은 日本人島崇三氏等이 中國人과함께農業에依한 日中提携를 目標하고 白河의下流、天津縣에서 古恩富로부터 土地二十五町步를借用하야 日中農事研究生을 收容하고 今年三月부터 開墾에着手한것이데 冀察側의 壓迫에對하야 島氏는卽時天津總領事館에事情을 陳情하고 地主의釋放及排日令解除運動을 이르키기로決定하엿다 北中排日은 日日擴大하야 停止할바를 모르는바 그進行은 注目된다

叛軍발렌샤空爆

【발렌샤二十八日發同盟】西班牙內亂은 全戰線에 亘하야오래동안膠着狀態를 繼續하더니 叛軍의空軍部隊는 二十七日夜半에突然人民戰線의 牙城발렌샤市를襲擊하야 市內에 爆彈四十個를投下하엿다 突然한 空襲에 市內의家屋十數戶는 破壞되여 佛國大使館으로부터 八十米의 地點에잇든 一家屋은 粉碎되여 死者二十名 負傷者百餘名을내엿다 附近에碇泊한 英國船一隻도擊沈되여 負傷者를내엿다

昭和維新斷行!

文官任用令改正 人材拔擢을企圖

【東京電話同盟】林首相은 過般來非公式으로 大橋書記官長 川越法制局長官에 對하야 文官任用令의 根本的改正에 關하야調査를 命하엿든바 首相의意圖하는바는 野에遺賢이 업게하려는主張下에 現下任用方法은 根本的으로 改定하려함으로 이를爲해 國家試驗制度에對하야 再檢討를加하야 右制度의 廢止까지도 考慮하는模樣이다 따러서이에 代身할 適當한 具體案을엇고저하는데 이를正式閣議의 議題로서 論議함에는 相當히 迂餘曲折이 豫想되고 또한樞府側의 意向도相當히 考慮하지아니하면 아니됨으로 最近과 가튼反政府的空氣가 濃厚한 樞府의現狀으로보아 現內閣下에 實現은 거의 不可能하다고 觀測된다 그러나 閣內部에 잇서서도 널리人材登用의 길을 열다는主張에는 反對의 理由는업다 要는 그方法및如何한 人物을 登用함에잇다 現行制度는 學閥閣을 防止하고 人材를 求하다

獨佛通商協定案 近近調印乎

【巴里二十八日發同盟】獨逸經濟相샤하트博士는 二十八日午後官邸에 佛國首相블룸氏를 訪問하고 伯林駐箚佛國大使폰세氏를交하야 一時間에亘하야 會談을遂하엿다 協議한結果 獨佛兩國間의通商協定案에 對하야 原則的으로 意見이 一致되엿다고 傳하는바 아마今後一週間內에는 新協定案의 起草를마치고 調印하게될터이라한다

英兵이襲擊暴行 日本漁業公司를

【山海關二十八日發同盟】二十七日午後九時頃山海關駐屯의 英國兵約二十名이 山海關滿洲國側海岸에잇는 日本人增田悅次氏經營의長城漁業公司를 突然襲擊하야窓門等을 破壞하고 또繫留한漁船의纜을 切斷하는等 亂暴을行하고 撤歸하엿는데 多幸히日本人에는 負傷者는업섯다 原因은前日 英國兵二三名이 同公司의滿人宿舍에 無斷侵入하야 滿人에 作戲를行한後 一名을毆打하엿스므로 滿人들이 憤慨하야 이를

皇太后陛下 宮城에行啓

【東京電話同盟】皇太后陛下께압서는 來月五日東京御發 伊勢神宮을御參拜하압시고 京都、奈良、名古屋方面을 約四十日에亘하사御十三年만에 行啓하압시게되엿는데 二十九日午前十一時半 大宮御所御出門、宮城에御參內、天皇皇后兩陛下께 暫時의御惜別의말삼을하압시고 三陛下御同伴하사 午餐을함께하압신後 皇后陛下와함께紅葉山의 御養蠶所에납시사 目下四齡의蠶이 잘成長하는것을 御寬하압시고親히 御給桑等을하압시엿다고 承聞되다 이에 皇太后陛下께압서는 午後三時半宮城御出門 御機嫌御麗하압시게 大宮御所에 還啓하압시엿다

東久邇宮殿下 會寧으로御向發

二十八日午前十一時御入京하신東久邇宮殿下께서는 二十九日午前八時五十分 昌德宮大妃殿下를御訪問하신後 午前十時十五分 軍司令部를御訪問하신다음 正午頃에朝鮮호텔로 도라오셧다가 午後二時自動車로 汝矣島飛行場에臨御 飛機로會寧에 向하시와御出發하시엇다

叛軍、발렌샤空爆 各外交公館도破壞

家屋三千餘戶破壞코人命死傷多數

【발렌샤二十八日發同盟】西班牙叛軍의 空軍部隊는 二十七日夜半突然人民戰線의牙城 발렌샤市를襲擊하야 市內및港內에 爆彈五十餘個를投下하엿다 突然한襲擊으로 市民은狼狽하야 右往左往混亂하야 就中米國陸軍武官과 米國大使館首領노르만·로마스氏夫妻는 寢衣만으로 街上에避難한狀態이엿다 爆彈은 太半市內繁華한場所에落下하야 主要建物三千餘戶를 破壞하고 米國領事館英國空軍武官宅은 大破되고 우루과이公使館의 서치라이트는粉碎되여 死者四十二名 負傷者百十二名 그中六十七名은重傷을當하엿다 또爆彈은 발렌사港碇泊中의 英國船빈손號카덴號에도命中하야 카덴號는 沈沒하고 乘組員七名은卽死하고 八名은負傷하엿다

英船빈손號도沈沒

【발렌샤二十八日發同盟】英國船 一隻은 西班牙叛軍飛行機의 爆擊에 遭遇하야 二十八日午前二時四十五分 발렌샤海岸에서 擊沈되엿다 乘組員中七名은 卽死 八名은 負傷하엿다

汕頭事件解決要望 王外交部長訪問 日高代理大使

【南京廿八日電話同盟】日高代理大使는 淸水通譯官을 帶同하고 二十八日午前十時半外交部에 王寵惠部長을 訪問하고 汕頭事件의顚末을 詳細히 說明하고 靑山巡査에게는 何等失手는업고非는 全部中國側에잇다는旨를指摘한後 如斯한 紛爭은 國交上重大한 影響이미칠것임으로 中國側은 率直히 그非를認定하고 速히 解決하야 將來國交에 累를끼치지안토록 努力하기바란다고 佐藤外相의 意向을 傳達하고 中國側의 善處를 要望하엿다 이에 對하야 王部長은 中國側은 如斯한 紛爭이 國交에 影響을 끼침은 遺憾이다고 생각하나 雙方의 主張이 距離가잇스므로 眞相의 判明을 기달리여 考慮하련다는 旨의 明瞭치안흔 回答을 하고 不得要領裡에 同十一時 會見을 마치다 따러서 這般情勢

中國側의讓步로 汕頭事件解決?

【廣東二十八日發同盟】靑山巡査侮辱事件에 關하야 廣東省府責任者는 二十八日本側에 對하야汕頭市政府의 反對行爲는 省政府의 訓令에 基하지아니한單獨行爲로서 省政府主席吳鐵城氏는事件의 圓滿한 解決을 圖키爲하야 汕頭市長에 對하야가장友誼的精神으로서 日本側과 折衝에努力하라는 訓令을 發한旨를言明하고 問題解決에 對한中國側의 誠意를 表明하엿다 따러서 汕頭事件은 中國側의讓步에依하야 近近解決될터이라한다

今日少年朝鮮日報發行

內外國 理髮器具 化粧品 鏡臺 都賣

新興朝鮮에躍進하는業界의大波動에싸이여弊社는社會奉仕的大決心을가지고需用家諸位께宣誓하는것이곳優良한商品을廉價로迅速히提供하겟다는말슴이외다더욱愛護가잇기를간절히바라나이다

京城鐘路二丁目
販賣元 東亞理髮器具株式會社
振替京城一一九八五番 電話光二一二三番

여러분의 사랑하는子女들의 우장옷은 다준비되엇습니까 雨期는일로부터올시다
市內는電話하시면즉시配達하옵고地方은代金引換으로發送합니다

雨衣都散賣

雨衣雨覆シート防水布一切은如何한多量의注文에도應합니다 商店配達自轉車用及作業用各種學生男女用各種 紳士用レインコート各種
京城光熙門外新堂町
朝鮮防水布製造所
電話本局二〇二番 (定價表進呈) 振替京城五三七六番

朝報案內

買受
朝鮮日報自昭和八年四月二十六日附至同十年五月分을讓渡하실분이게시면通知하시압 京城府明倫町三丁目六七ノ七 李達變

社員招聘
一、幹部社員十名、學歷中等程度
二、任地京城仁川水原安城鐵原春川原州
三、相當한經驗者는特히優遇함
履歷書郵送、面會日通知함
京城府元町二ノ二二
日本生命龍山出張所

募集
全鮮各地方實任者를至急募集하니返信料添付하야書面으로照會하면詳細回答함但地方有力者를希望함 京城府昭格町九三 昌振社朝鮮花譜出版部

病院
貸前■馬金融組合跡有意하분은電光二二五六番으로問議해주시요

판토크린이란 무엇입니까?
판토크린은 純全한花鹿茸精血로서맨든 世界的造血、强壯、强精劑이올시다。

花鹿茸이란무엇입니까?
花鹿茸이란것은 初봄에 사슴뿔이나기始作해서 二三個月밧게안된 柔軟하고 血管이만흔것인데 鹿茸中에서 가장 高貴한것이올시다。普通巷間에서 파는것은 구더진것으로 馬鹿茸或은 鹿角이라합니다。

판토크린의 効果가 정말 그러케 조습니까?
古來로부터 鹿茸의効果가 優秀하고 卓絶한것은 다시 말슴드릴必要도업습니다。더욱히花鹿茸인데야 조흐면 그저조켓습니까?

판토크린은 어데서맨든것입니까?
판토크린은 蘇聯國立內分泌研究所에서 創製한것이올시다。

朝鮮에서는 못맨듬니까?
朝鮮에 鹿茸이잇서야지요 普通江茸이나 北茸이나 하지마는 現今의 鹿茸은 거이 全部가 露國西伯利亞에서 납니다。

판토크린은 어데서팝니까?
京城鐘路 共生藥業株式會社(振替京城22002)에서 朝鮮、滿洲、日本內地及臺灣의 一手販賣權을 가지고 거기서 팝니다。

어떠때에 第一조습니까?
貧血、肺結核、神經衰弱、陽氣下足、一般虛弱、肋膜炎、消化不良等에는 勿論이오 其他衰弱病、腺病質、萎黃病、帶下症、手術及癒合이 느진때等에 조습니다。

갑은 얼마나 합니까?
판토크린에는 內服液과 注射藥의 二種이잇는데 內服液은 十五日乃至 二十日分에 七圓五十錢이고 注射藥 一函六瓶入에 九圓이올시다。

舊方에新體系세워 現代化하는漢藥

五個年計畫으로 效能性能成分等을研究

斯界權威者總動員

양약(洋藥)에드리운이후 오래동안천대를받든 한약(漢藥)도현대과학에의지하야 현대화하게되엇다 그내용에는 총독부위생과에서양약에대하야는 일본약국방(日本藥局方)이란것이엇스나 한약에대하야는 어와자는 하등의체계가업서서 극히불규측、불통일함으로 한약국방이란 새로운체계를제정하야가지고 시험규격(試驗規格)、성분(成分)、효능(效能)、성능(性能)등을 연구하야 효과적현대화하게하는것이다 어것은 에미약학박사(米藥學博士)등전동경제대교수(藤田東京帝大教授) 상원경성제대교수(加來) 동조교수(杉原) 동약학전문학교장(國峰藥專校長) 안본(安本)동조교수、천구총독부기사(川口技師)등이 위원이 되어 가지고 오개년 계속사업으로 연구하야 완성할터인데 열린십팔일부민관(府民館)에서 조선약종상 조합(朝鮮藥種商組合) 총회에서 천구기사가 여러지를 설명한결과 출석하얏든약백여명의약종상 의생들도 대찬성하야 장래에큰기대를 갓는다고하얏다 이것은 조선한약계를위하야실로명랑한소식의일편이다

女性朝鮮의快氣焰

梨專教授高凰京孃에 榮譽의博士學位

미쉬간大學에博士論文提出 父女가함께博士인學者家庭

高凰京孃

조선에도 여자박사한명이 또생겨나서 조선여성의기염을 올리고엇다 리화여자전문학교(梨花女專)교수 고황경(高凰京)(三二)양은 얼마전에 미국 『미쉬간』대학에 박사위론문을 제출하엿든바 이십팔일에 그 대학 교수회에서 통과되엇다는 반가운 기별이왓다한다 그가제출한 론문의제목은『소녀범죄의계절성』(少女犯罪의季節性)이라는것인데 미국의학위칭호는 철학박사(哲學博士)이나 더 엄밀히 구분하자면 실상은법학박사(法學博士)에 해당한것이다

고황경양은『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외과교수(外科教授) 고명우(高明宇)씨의이녀인데고명우씨도 미국의학박사이므로 아버지와딸이 모다 박사의 학위를가지게되여서 조선서는 보기드문『학자가정』(學者家庭)이다。고황경양은 일즉이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京城女子高普)를 졸업하고 경도(京都)에 건너가서 동지사(同志社)전문학교영문과(英文科)를마치고 다시 동지사대학법제경제과(法制經濟科)를 졸업코서 법학사(法學士)의 학위를 어든뒤 멀리미국으로 건너가서『뮈쉬간』대학에입학하야 경제를 연구하야『엠·에이』(M·A)의학위를어덧다한다 그리고는다시박사학위론문의자료를 수집하기위하야미국『띠트로이』재판소(裁判所)에가서두개월동안이나견습하야재료를어더가지고 재작년가을에금의환향하엿는데 그동안리화전문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잇는동안가위치석을 이저가면서 론문을써서 수월전에 보내엿든것인데마츰내 영광의 학위를 엇게되것이라한다 조선에서는 여자박사로는 리화여자전문학교부교장(副校長)으로잇는 김활란(金活蘭)씨한분뿐이엿는데 이제는 두분이되여서 조선의 여성학도들에게모범을 보이게되엿다

朝鮮少女의犯罪도研究 高凰京氏談

미국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데트로이』소년심판소에서 륙개월동안 여러가지편리를 어더서자세한통계도엇고도조선에도라와서는 경성제국대학법학부교수들의 편의를어더서 그대학도서실에일년동안다니면서 그론문을완성하게된것입니다 귀국하든길로장질부사에걸려서 약삼개월동안 산고하엿기때문에 론문작성에한동안 지장이생길뻔도 잇섯습니다 아프로도조선소녀의범죄에대하야더연구와조사를해볼가합니다

骨肉相爭一件 조카가叔父거러

이십팔일 오전열시쯤 룡산서 사법실에는 미덥은 숙부가내돈을 사기해먹엇스니 찻게해달라고 숙질간의 골육상쟁의 고소장이 한장드러왓는데 그내용은 다음과갓다 부내동빙고정(東氷庫町)일백 칠십륙번지에사는 우홍실(禹弘實)은 부내흑석정(黑石町)오십 륙번지에사는 우종문(禹鍾文)의숙부되는 사람인데자기조카 우종문에게 작년십일월경에 집을사주기로하고 동빙고정어에오십일번지의초가집을 ... 팔십원으로 결정햇스니 돈을 달라고하엿다 그는숙부이므로 밋고대금삼십원을 주엇스나 지금까지 집문서도 가저오지안코 도리어거저빼앗긴것을 알게되여 우종문은 자기숙부되는 우홍실을 상대로 고소제기를하엿다는것이다

自轉車賊被逮

여섯주일여중에 룡산서에서는 전남라주군라주읍과원정(全南羅州郡羅州邑果院町)이십칠번지에둔 원적을 주소부정의 김일우(金日雨)(一六)를 체포하여왓는데 그는자전차 전문절도범으로 지난사월이십구일에 부내본정(本町)삼정목오십사번지 사는광뇌용포의 자전차시가사십원의 물건을 절취하야 남대문소학교아동에게 이원에매각하엿고 지난구일에 명치정(明治町)일정목오번지 뇌미매춘(瀨尾梅春)의 자전차시가 사십원의물건을 길가에세워둔것을보고 그것을 절취하야 남대문시장에가서 모르는사람에게 상당에 매각하엿다는 자백을 하엿다는데 또계속하야 여죄를 취조중이라 한다

K·I·S의略號찍힌 眞鍮를黃金으로

三月以來二十七回나詐欺

KIS의 비밀—전북 남원군(全北南原郡)출생으로 부내 종로(鍾路)사정목일백팔십번지에거주하는 전과이범 김희권(金熙權)(三七)이는 이십팔일오후일곱시쯤에 부내본정(本町)사정목 일백팔번지 고물상 수야상점(永野商店)에와서 십팔금금테안경두개를팔려다가 주인이 사지안흠으로 도라가는것을본정서원이수상이여겨 동서에다려다가 취조하엿든바 그안경은 신주(眞鍮)이엿는데K18이라고 찍은것을 자세히 조사하엿드니 그것은K18이 안이고『KIS』엿스며이자는 얼마전종로에서 문패장사하는 리모(李某)(三七)라는사람에게서 상당을사취한 것을 비롯하야 삼월이래 스물일곱번이나범행을피하야가며 수만흔자들을속혀왓다한다

學園怪賊의連累? 前科五犯醫書賊

未解決事件에一條의曙光?

이십팔일 전과오범의 대적이동대문서원의 손에잡혓다 부내인사정(仁寺町)륙십이번지의이호김재도(金載鎬)(三二)는 전과 오범으로 취조한결과 지난닷새날오전열한시 대낫에 대담하게도명륜정(明倫町)일정목 이십칠번지의십삼호 유인기(柳仁基)의집에하숙한 경성의학전문학교 생도 김영주(金榮注)(二〇)군의 의학서적이 십삼원어치를 훔친것을자백하엿는데 동서에서는 지금시내각서에서 범인체포에날뛰고잇는학원도난사건에만흔관계를자지고잇는것을 단정하고 여죄를엄중추궁중으로 그의체포로 학원을 전문으로 노리는 괴도사건해결에 서광이 비치기시작한듯하다고한다

故鄕學校設立費로 一萬七千圓喜擲

李鍾萬氏또快擧

경남울산(蔚山)출생의 광산가 리종만(李鍾萬)씨가 영평(永平)광산을 일백오십오만원에 팔아가지고 그중 오십만원을 농촌구제사업에 던지고 또십이만원을 그광산종업원들에게 풀어준 아름답고 통쾌한 사실에 대하야는그때마다 자세히 보도한바와갓거니와 이근래에드문 독지가가또다시 자기고향의학교설립비와 궁농민에게 일만칠천원을쾌히 내여노하 그갸륵한열성에일반은 감격을마지안코잇다

이십팔일 리종만씨의 고향인경북울산군대현면(蔚山郡大峴面)면장 김동호(金東昊)씨를 비롯하야 면유지 일곱명이 상경하야 리종만씨와 종로삼정목 그광산사무실에서 회견한결과 이십여년전에 리종만씨가 그가단이던 대흥서당(大興書堂)을 중심으로 대현학교(大峴學校)를만들어 두엇던것이 현재에는 대현공보(大峴公普)로 승격되여 그의 향리인 대현면 룡잠리(龍岑里)로부터 면중앙으로 이전된결과 그의향리에는 칠백여명미취학아동이 나게되여 이를구제하기위하야 룡잠리에 공립보통학교하나를 더설립할기금으로 현금 일만오천원을 내겟다고 선언하게되엿다 이와동시에 울산읍에잇는 을종(乙種)공립농업학교가 갑종(甲種)으로 승격됨에 따라 대현면민부담금오천원중농민부담의 이천원을 자기가단독으로 부담하기로 언명하엿다 그리고 그전에오십만원의 농촌구제금중 십만원을 자기가 생장한고향을 중심으로 리상농촌건설을 위하야 쓰게확정하여근근대현면민대회를 열어 실제착수하게되엿다고한다

十三校代表動員 中等校庭球開幕

今日佛專코—트에서

중앙불교전문학교(中央佛教專門學校)주최와 본사후원의 제삼회전조선중등학교정구대회(全鮮中等學校庭球大會)는 이십구일오후한시부터 명륜정(明倫町)불전코—트에서 열리엇다 벽두에참가한 열세학교대표 팔십여명의 입장식이잇서 동회 부회장 김두헌(金斗憲)씨의 개회사와 작년도우승교 보성고보(普成高普)의 우승기반환이잇슨후 보성고보 주장 정운소(鄭雲昭)군의선서가 잇섯고 래빈측으로부터김경홍(金敬弘)씨의 축사가 잇슨다음 심판부 박성희(朴成熙)씨의 주의설명으로써 입장식을마치고 제이고보(第二高普)대 중앙고보(中央高普)의 제일회전으로부터 경기의막이 열린바 이날 석간마감까지의 전적은다음과갓다(사진은입장식과경기광경)

(第一回戰)

【二高】勝 【中央】敗

(第一라운드)

○(金慶鎬 朴喆圭)4…0(金鐵世 吳鈞鎬)×

×(崔昌渝 趙鍾燦)2…4(鄭一圭 崔炳圭)○

(第二라운드)

○(康道淳 金在鎬)4…0(李範綜 朴鍾燦)×

○(金慶鎬 朴喆圭)4…0(鄭一圭 崔炳圭)×

佛教와儒教로誘導 民衆信仰도統制

基督教와天道教等을떠나서 日本國魂에歸一企圖

최근 총독부에서는 신앙(信仰)통일 사상통일 종교통일등의문제가 대두하야 여러가지로 연구중인모양인데 지난번 각도지사회의때에도 이문제가 제의되어 여러가지로 토의된바잇섯다 그내용인즉

◇조선사람의 전통적관습인 선조(先祖)를 숭배하는 미풍을적극적으로 선도(善導)하야 천조대신(天照大神)과 일본국혼(日本國魂)을 숭배신앙하도록귀일(歸一)케할것

◇기독교(基督教)와 천도교(天道教)가튼것을 신앙하는것은 여러가지로 폐단이만흐즉 이신앙심을 전환하야 불교든가유림에 귀일케할것

◇경학원(經學院)에 유림(儒林)단체로 명륜회(明倫會)본부를두고 각도에명륜회 련합회를설치하는동시에 각군향교(鄉校)에는 명륜회지부를두어서 유림을통제할것

등인데 이문제는 원악중대문제임으로 경경히 처결할문제가아니라하야 지사회의에서도 의견교환의정도에 끗첫스나 금후고려하기로되엇다 그런데 만일이것이 구체화하는때에는 종교사상에 일대파문을 이르키게될모양이다

鄭仁果、李大偉兩氏 鍾路署서拘引

出版法違反으로?

수일전 종로서고등계에서는 기독면려청년회 조선련합회(基督勉勵青年會)총무요 금주 절제회(禁酒節制會)회장인 리대위(李大偉)(五三)씨를출판법위반(出版法違反)혐의로검거취조중이든바 이노교(老教)계의 중진이요『아이생활』사사장인 정인과(鄭仁果)씨를검거취조중인데 사건내용은 단순한 출판법위반혐의만이아닌듯하며그들이모다 조선기독교계의중심인물인만큼 사건의 귀취는자 못주목된다

飢餓의農村脫出 三人共謀로窃盜질

古市町方面에橫行타가被捉

피폐한시골에서 굶주림을견디지못하야 서울까지류랑한 세소년이 상인조절도단을 조직하야범죄를거듭하는중 이십구일룡산서에검거된사실이잇다 그들은원적을 함북웅기(咸北雄基)에둔김왕손(金王孫)(一八)、충남 공주군공주읍 대화정(忠南公州邑大和町)에원적을둔 우종호(禹鍾浩)(一八)개성부(開城府)에 원적을둔 리일선(李一先)(一六)의 세소년으로 그들은 서울에서 우연히서로 만나게되여 가튼환경에잇스므로 서로 기아선상에서 헤매이는그들은 서로 결탁하여가지고 지난십삼일 새벽에 부내고시정(古市町)십이번지의 십삼호에잇는 편창생명조선지점(片倉生命朝鮮支店)건축창고에 침입하야 시가삼원사십전의 삼나무열개를 절취한것을 비롯하야남대문시장등지를 도라다니며 식료품등을 절취하다가필경 룡산서에랍치되여체포된것이라한다

現金一萬圓을 育英事業에喜捨

德源 康基燗氏壯擧

【元山】영재교육(英才教育)기금으로 일만원을 희사한 명랑한소식—원산부남촌동(元山府南村洞)강기형(康基燗)(五八)씨는 먼저덕원군적전면당우리(德源郡赤田面堂隅里)적전공립보통학교(赤田公普校)에학급증설기금으로 어천원을 자진희사한일이잇서 그학교학급증설운동에 새로운힘과 비약을어불원에 실현의서광을 보게하얏거니와 이번에는 다시일만원의큰돈을 돈이업서서 공부못하는유위유망한부산자 교육에쓸 장학기금(獎學基金)으로 덕원사회에 희사하야 이방면에 랭담한 사회인들에 일대『속크』를주고잇다 즉 전기강기형씨는 지난십구일 덕원군 적전면 당우리에서 다수인사의회합석상에 장학기금으로 일만원을 희사할뜻을 선언하는동시에 그관리인으로 강기찬(康基瓚)씨외수명을 지정하야 그리하야 그일만원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매년 그토지수입으로 장학비에 사용하기로하고 금년도부터실시할 구체안을 세웟다고한다 이와가티 일만원을 육영사업에 희사함은 덕원지방은 물론 원산에도 업섯든 사실인만큼 일반에게 일대『센세이슌』을 주고잇다 (사진은 강기형씨)

올림픽東京大會 取消案擡頭

伯林會議以來十個月이지나도 大會場未決定의醜態

【倫敦二十八日發同盟】월쇼-에서 열리는 國際올림픽委員會에 出席하는 日本올림픽委員副島伯은 倫敦에서外苑案變更의 報道에 激憤하야 辭職의決意를굿게하고잇는데 ... 오늘과갓다

一、外苑案을 變更한 理由는風致問題인데多少犧牲하고라도陸上에 十萬人 水泳에七萬人을收容할 程度까지 會場을擴張치못한것은 이우에업는 醜態로 伯林會議以來十個月이 지난오늘에도 會場조차 決定못하엿다는 것은 國際信義上 지키지안흐면 아니된다

一、小國들사이에는 이미東京大會取消案이 擡頭하고잇는 形便인데 伯林會議以來『스칸디나비아』各國의反對도 잇슴으로冬期大會招致等은 豫想키도어렵다 以上의見地에서 월쇼-會議에서 伯은東京出發以前組織委員會에서 決定한訓令과가티 外苑을 主張할터인데 이것이 變更되면 伯은 辭職할수밧게 업슬것이다

一、伯은 組織委員會와 및 競技部의決定에따라 米國에서東京大會후 ... 를印刷하야 여러곳에 配布하엿는데 會場은外苑으로 組織委員會의 決定案을指定하엿다

平壤飛行隊機 龍岡海에墜落

이십칠일평양비행제륙련대(平壤飛行第六聯隊)소속의 쌍발경폭기(雙發輕爆機)는 룡강군오정리(平壤西南)에서 『킬로』의 연습을 끗마치고원대(原隊)에도라오든중에 룡강군서화면죽본리(瑞和面竹本里)바다십이『킬로』의 지점에서 조난하야 탑승자내전(內田)군조、덕무(德武)상등병은순직하엿는바 시체는 이십구일오전두시에 발견되엿다

京城左翼勞組事件 來月十八日公判

金承墳等十三名出廷

작년십이월이십팔일 경성지방법원제일예심계에서 유죄결정이되야 그법원합의부공판에 회부된소위경성지방좌익로동조합조직준비회(京城地方左翼勞組織準備會)사건관계자 김승훈(金承墳)(二四)등열두명에관한 치안유지법위반피고사건제일회공판은 드듸여 오는륙월십팔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산하(山下)재판장주심、장기(長崎)검사관여미테 열리기로 되엿는데 당일출정할피고의씨명은 다음과갓다

金承墳(二七) 金順萬(二九) 權又成(二三) 安承樂(二五) 李杜夢(二七) 安昌大(二八) 崔成浩(二七) 姜貴南(女子)(二七) 鄭載轍(三二) 卞基學(二九) 崔利七(二五) 鄭龍鳳(三三)

中等籠球 對陣을決定

延專主催와 本社後援의第七回全朝鮮中等學校籠球大會는 六月四日(午後二時半)과五日(午後二時)의兩日間 新村町 延專코-트에서擧行할터인바 이날의對陣은 다음과가티抽籤決定되엿다

(第一日)		(第二日)	
[illegible] 3·40	5·20	2·00	3·30
[illegible] 4·30	6·10		
[illegible] 3·40	5·20	2·00	
[illegible] 4·30	6·10		

A코-트 B코-트

天氣豫報

豫報 京城地方은 今夜와明日은 개엿다 흐렷다하며 京畿全道도갓다

昨日最高 二〇度三

同 最低 十二度一

今朝最低 一〇度九

同 正午 二〇度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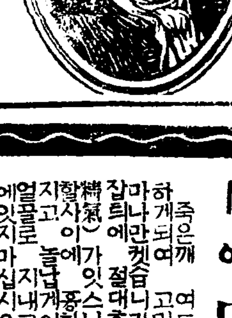
全朝鮮籠球 六月八、九日로變更

朝鮮籠球協會主催의 第七回全朝鮮籠球選手權大會는 來六月十四、五日에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할豫定이든바 主催側에서는不得己한事情으로 期日을다어서六月八日과 九日의兩日間(每日午後四時)京城運動場에서 決行하기로되얏다한다 따라서申請期日도 六月五日까지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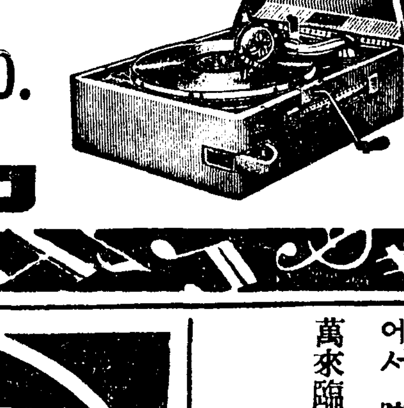
廣告

小兒科專門 醫學博士 方斗翰 京城府齋洞町四街路 電話光二二五二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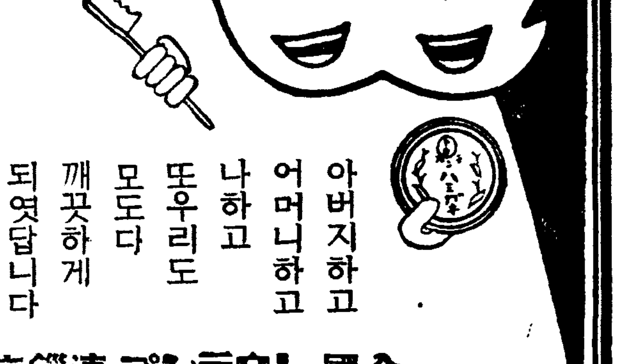
大バッハの金字塔! フーガの技法 ロート絃樂四重奏團 豫約募集! 〆切六月廿五日



夏來る! 第二〇三號(淺青色) 第二〇四號(茶鼠色) 輕くて堂々たる音量を有する本格ポータブル! ¥40. Columbia 製造發賣元 日本蓄音器商會 コロムビア



小資本工業案內 三錢切手添送하시면小資本大成功에關한各種原料와各種日用品及洗濯石鹼製造法案內書一切를送呈함 京城府長沙町二九 (原料商) 泰昌工業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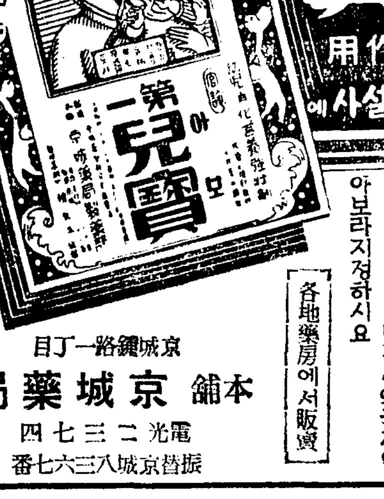
トウ ハミガキ 二十五錢(百二十回分) 固形·經濟·스마-트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나하고 또우리도 모도다 깨끗하게 되엿답니다
全國 連鎖店

코、正當한治療法
코흘리고 맥힌대
鼻病解說 東京市芝區南佐久間町二ノ二 確報堂藥品部
人相의缺點이코가나쁜까닭

漁具 投網 四分一丈 五分一丈 九十一圓 鳥捕網 二間 二圓 釣竿、釣針、麻絲、絹絲、綿絲其他 (申込次第カタログ進呈) 京城府黃金町四丁目 海鮮商會 電本四三〇 振替京城二〇五七九

名物 平壤肉すき燒 味覺百퍼-센트 視覺半島第一 서-비스料一割 酒付一圓 川魚料理 ウナギかば燒、和食なべ物專門 宴會는一人前一圓부터相談에應하게습니다 電話光(五)一〇六七番 美吉 鐘路二丁目パゴダ公園入口

어린이補藥 第一兒寶 當養治病豫防에三大作用 간기경풍유체푸른똥설사에



특히다음가튼증세에 꼭가정에상비하시압
一、젓、우유、밥、암죽에잘체하며위장이 튼튼치못하고 영양이 부족하며쇠약한데
一、간기가잇고젓을 토하거나 푸른똥과 설사하는데
一、체하야보채고울며 잘놀내며경풍과복학과신열잇는데
一、기타간난아이모든病에신효함
類似品注意 갓흔이름이잇스니경성약국제일아보라지정하시요 各地藥房에서販賣
本舖 京城藥局 京城鐘路一丁目 電光二三七四 振替京城八三六七番

徽文高等普通學校

本月三十日(日曜)午前九時부터 本校運動場에서 陸上運動會를開催하오니 校友諸氏는 掃萬來臨하심을務望

죽은깨 여드름에 皮膚精氣 現代科學의產品
죽은깨、여드름 고민으로 잡티로 세월을 보내시는분 ... 皮膚精氣의偉力
發賣元 合資會社 日光堂藥品部 京城府和泉町二二九 振替京城一九一四三番

매독창병엔 푸로다ー가 제일이오

경성서대문 신기신성당에 잇습니다

육백육호를여러대써도 안되는분은 꼭한번시험하서오

물가폭등 지금안쓰시면 곳 약갑이 몃배나올읍니다

人生의最大幸福인健康美를 맛보시오 언생은 건강이제일입니다 무병이 장자오 병두고는 영웅렬사라도 못견됩니다 병이라는것은 안죽는병이업다손톰밋헤 비접만드러도 그것이 원인이되여 큰병이되여 축게된다하니 하물며 몸에 큰병이잇스면 일시라도 속히치료하여야합니다 신성당푸로다!는 효력이속하고 절대책임잇는 약이오니 무서운병을 속히고치시와 인생의제일행복인 건강미를 어드시오

자미잇는문제?

내가지금매독에 걸녓다고가정하고 곳 치료를하여야하겟는데어찌하여야될가? 무슨약을써야할가? 생각하야 보시요 만일 푸로다ー보다 더조흔약이잇거든 그약명과 내용을통지하야 주시면 사례하겟습니다 신성당은제일 조흔약을팔기가소원이고제일조흔 약을파러야영업이홍왕하는까닭

驅黴最新强力劑

매독전멸하는제일힘센신발명약

푸로다ー

PROTAR

매독에대한신발명참해(慘害)

매독은 살이퍽퍽 썩어들어가는 무서운병인줄만 알엇드니 이외에 일년에죽는사람이 수만명인것을 알엇다 그중에도일층더 참혹한것은 뼈(骨)를 갉가먹을뿐더러 이(齒)까지 다갉거먹어 전부빠진다 최근에 모운전수는 하로밤의 작난으로 몟달못되여'이'가ー다ー빠지고 전신을움직이지 못하게되여어느병원에서든지 치료하기어려웁다는 리유로 입원을거절함으로 최후에치료하다가 죽어도조타는 부모의승낙서를가지고 왓는대도 거절함으로 야밤중에 자동차를타고 신성당으로와서 애걸복걸하엿섯다 그리하야 하여간 제일강한'십오원'을 한제우선 시험하여보라고 하엿더니 차차효력이잇서 지금은 완전한사람이되여 이를 다시해박고 여전히 활동한다 한다 지독한 매독이여 경성신성당에서 요즘새로 신발명한 강력매독약'푸로다ー'가잇다 십오원짜리한제면 고만이라한다

매독에는 륙백륙호만 마지면곳낫는 줄알엇섯다 그런데근래(近來) 륙백륙호로매독이완전히 근본적으로완치된다는말도듯고 또실지로연구하야보앗다 또 매독환자는그다지만치안혼줄알엇섯다 그러나 그생각이전연(全然)치근본적으로 잘못알엇다는 것이판명되엿다 즉륙백륙호를 매독에걸려서즉시 계속하야일주일만에 한번식 십여대나마저야 겨우일시적효력을알게되고 잠간동안잠복시켜 매독을눌러서 못성하게 하얏다는것을 알엇다(일주일전에또마질수업는것이다 일주일전에 또마지면따병식을알케되고 잘못하면죽는고로일주일에만한번맛는것이다)다시말하면 결국 륙백륙호로는절대로는매독이근본적으로 완치되지안코또십여대나주사를마저야 겨우일시적정지를시킬수잇스나곳또다시재발하는것을알엇다 그러면 륙백륙호를칠십일이상불일못보고 돈을오、륙십원이상허비하고 주사를마저야 아모 소용이 업고귀중한시간과금전만허비한다는것을 알엇다 그뿐더러 륙백륙호를마지면 몸이약한사람은약일주일동안은일을못하고 코들어누어서 고통을밧는사람이만타 또주사를잘못마저서죽는사가정맥외(靜脈外)로새면살이썩어서 죽게되는고로 곳팔(腕)을잘러버리고병신이(不具者)되는사람이만흔것을알엇다 또그뿐더러열중에칠팔명(十中七、八名)주사를열대(十本)이상은돈이업서서(金錢時間이)과맛지못하고병을그대로두어서 살이떡떡썩어들가는것을만히보앗다 그일예(其一例)를 들면하로는 경성시내에잇는한남자가원 전신매독이만창이된시골머슴을다리고(雇人)왓는데와서 이병좀고처주시요하고보이는데 그병처(患部)를보고 깜작놀낫다 그병처라는것은당초에 말할수업는것이즉 분문(肛門)과낭(囊)사이에이전(二錢)짜리동전만하게 큰구멍(孔)이 뻥뚜러저잇섯다 저러케몸에 구멍이뚜러지고도사람이어떠케살어왓나하고 차차물어보니서울서머슴사리를하다가 시골서 역시머슴사리를하는데우연히매독에걸려 차차 살이썩어먹어들어가나머슴의신세라 약쓸돈도업고 주사마즐돈도업고하야그대로내버려두엇더니 그러케 구멍이크게뚜러젓고요지음은전신에 종긔부스럼이(梅瘡腫)룩룩터저 인제는 못살것가터서 그전살던서울주인을 차저와서 그전살엇든 정의로 사람좀살려주시오하고 애걸을하려온것이 판명되엿다 그리하야 그주인이돈은내가낼터이니 이물상한사람을좀살려주시요하고차저왓섯다 그리하야 약을주엇더니 완전한사람이되엿다고편지가왓섯다 또한례를들면 그후에웬남자가한부인을데리고왓는데 얼굴이만창이되여송진처럼두덕이가리저서 소름이끼치여서 눈으로는볼수업시되엿는대서 그부인말이 이병만곳처주면 죽어도 그은혜를안닛겟다고 우는소리를하면서하는말이 여자가얼굴이이러케되여 남이붓그러워살수가업스므로 주사는물론 여러백대를맛고 고약이라는약은잇는대로다 쓰고별별치료를다하여보앗스나 종시낫지안하는대엇던사람은암만매독으로치료하여도안나으니 매독이안이고풍이라고하야 풍약도무수히써도 안되고하니 신성당매독약푸로다ー는 매독이아니고풍이라도 나을수잇느냐 고말을하얏다 신성당매독약푸로다ー는 단순히매독속창병만낫는것이안이고 보혈(補血)、청혈(淸血)피를깨끗하게하는약임으로 서령매독이 아니고풍이라도 조흐니한번시험하여보라고 하엿더니 멧칠후에그부인이왓는데 말숙한미인이되여왓다 아ー참위대하구나 약의힘이여 그러케도무섭게 생겨눈으로볼수업든사람이 일간에 미인으로 화하는것을보면 그리고 그부인말이 인제는 사러낫습니다 선생님의은덕이야 그야말로 태산갓다고 합니다 이러한자신에서 그뒤로 차차연구를거듭하여보니 무슨병이무섭다하여도 매독가티무서운병이업는것을알엇다 즉 임질이나 부인대하증 냉병은자손에게유전(遺傳)은 안되는대 매독은 자손에게 유전할뿐더러 칠팔대(七八代)를 대대로 전하여가는것을알엇고 코가떠러지고 ○도빠지는것을 알게되엿다 즉 남편이병에걸니면 그부인도물론 꼭걸니고 아이도 피속에 그균(菌)을 가지고나온다 참무서운병이다 그리고 매독환자는적은줄알엇더니 사실은 그럿치안타 다ー비밀에붓치고 말을안하는고로 업는것가트나 그ー럿치안타 열중에 오륙명은잇다 그런대대개는 상약이나주사나 만히하엿서도 낫지못하고 고통을밧는것을알엇다 또수은(水銀)을피다가 죽은사람이만코 다른훈을하다가 병신된사람이만타 또조상약(造藥常藥)을쓰다가 피를토하고 구감(밥통과창자를버려)이나서 죽게된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럼으로 이무서운병을알면서 그냥둘수업스므로 충분히연구를하엿섯다 그리하엿드니 감사장이매일답지하므로 자신을어더 이와가티광고를내게된것이다 천만가지로약을하고 별별치료를다하여도안나어 고통하는분은 일시라도주저마시고 곳시험하시오 틀림업시낫습니다

◀약가▶

병이중한데는 십오원
병이어원만하면 십원
병이시초면 칠원
병이경하거나 예방으로는 오원

지방송료

선금 십오전
대금인환 삼십오전

병이좀심하면십오원분이좃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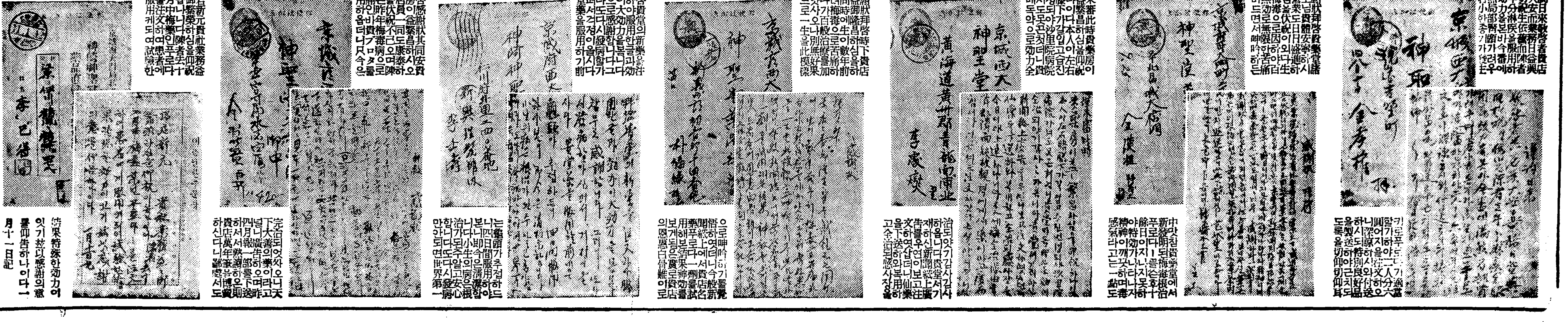
지금곳안고치면 대대손손칠팔대까지 유전하는무서운병은매독이다

매독은 당창, 또는창병이라고하야 살이떡떡썩어들어가는 무서운병이다 코가떠러지고, 이빠지는 병인줄은세상사람이다ー아는바이다。그런대 사람치고누구나다ー병근이잇다는대、병이발하야 심하야저야、치료를하나잘안낫고 나날이썩어드러간다、륙백륙호를맛는분도만호나、잘안되는 모양이다、그증거는 이세상에 매독이 업서지지 안는것을보드라도잘알수잇다。그런대 이『푸로다』는무엇보담답지하는감사장이증명한다。당신의생명을구하여주시는 구명주(救命主)가왓습니다。천사가(天使)왓습니다。이기회를일치마시고곡잡으시오。일각이급하오니곳치료하시오、주저마시고 다음과가튼증세의분은쓰시오。여드름이만히나고 종기와헌듸가잘나고、코가헐고、남녀간에국부가헐고、가렵고 전신에종기가룩룩터지는분은쓰시오。눈이회미하고머리가빠지고、팔다리가 쑤시는분은쓰시오。경성서대문 신성당으로주문하시면 당일로비밀히보내드립니다。약은 환약이오 일주일에효를봅니다。

매독전멸

만일무효면엇더한책임이든지집니다

京城府西大門入口(제일큰한벽돌집)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三三四番・振替京城四九五〇番



히말라야의 꼿 — 세게의지붕, 히말라야및 「다ー지린」 처녀가 거리에 [illegible]를 팔고잇습니다

갓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름가을에입는 옷은 그빗갈로가려야합니다. 무색이라고 자주가튼것은 힌빗보담 얼마 더 질기지도못합니다.

가정

옷을축내는햇볕 — 힌빛보담 무색이 질기다

힌옷입는폐해는 여기도잇스나 물깜을 잘골라야할일

힌옷이 무색옷보담 불경제라고 하니까 누구나 생각하기를 힌옷은 더럼을 잘 타서 자조 빨고 자조 입는 것으로 알아 버리고 맙니다. 물론 그 것을 불경제의 큰 원인으로 치지 안흘 수 업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외에도 또 한가지의 큰 원인이 잇는 것을 이저서는 안 됩니다. 본래 어떤 옷감이나 힌 것이 무색것보담 질기지를 못 하답니다. 즉 옷감에 물을 드리는데 딸아서 더 질기어 지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빗갈 중에도 더 질기고 덜질긴 것이 잇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옷감에 물을 드리시는 것이 조흡니다.

옷감이 빗갈에 딸아서 더 질기고 덜질긴 것을 아는 방법은 아조 간단합니다. 각가지 빗갈의 똑 가튼 옷감을 백키로그람식 똑가티 일광(日光)에 쪼이어 어느편의 무게가 제일 덜줄고 또 어느 편의 무게가 제일 만히 주는가를따지는 것입니다. 그러케 동경피복창(東京被服廠)에서 실험한 결과

힌빛 五五、九키로그람
자주 六五、一〃
다황 六六、二〃
황색 六八、七〃
주황 六九、一〃
파랑 七五、八〃
빨강 七六、四〃
검정 七八、〇〃

여로 보아서 제일 만히주는 것이 힌빛이요 그 다음이 자지 또 그 다음이 황색 또 그다음이 천색도 그 다음이 천색 제일아니 주는것이 흑색입니다. 그와 동시 어떤 빗갈이든지 무색이라면 그저 힌빗보담은 칠석 더질긴것이 사실입니다.

×

물론 무슨 옷감이고 일광에 쪼이어 노흐면 자외선(紫外線)의 작용(作用)으로 점점 약하야 저서 무게가 주는것인데 빗갈을 딸아서 더 심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철을 딸아서 겨울가튼 때는 그 자외선 작용이 덜하다가 여름과 가을에 와서칠 썩 더 심해 지겟지만은 어느 철이나 빗갈에 딸은그 비률(比率)만은 조금도 변하지를 안습니다. 그런데가튼 빗갈도 그 물감이 잘 나르고 안나르는데 딸아서 다르니 잘 나르지 안는물감이 더 질기고 잘 나르는 물감이 덜 질깁니다. 또 그빗갈이 진하고 연한데 딸아서도 다르니 진한 것이 더 질기고 연한 것이 더질깁니다. 본래 연한 빗갈은 잘 나르지를 안습니다. 빗갈이 나르고 진한 빗갈은 잘나르는데는 그 빗갈만 나르고 마는 것이 아니요 거기 딸아 옷감까지 상하게 하는 모양입니다.

×

물시감이 조치 안 하면 오히려 힌빗보담 더 약해지지 말란 법이 업습니다 다 옷에 물을 드리는 것은 해롭지안하나 조흔 물시감을 써서야지 나뿐 물시감을 써서는 도리어 안 드리는이만도 못합니다.

장마때기저귀는 이러케말립시요

장마철이되면 축축한 날세가 계속됩니다 이러할때에 기저귀말리기가 큰일입니다 하로에 열깨가까운 기저귀를 터려내니 그것을 입엽이 말리기가 큰일입니다 날세가 조흐면곳 마르겟지만 몃칠이고 흐리거만하니 날마다 싸이고싸여 여 원 집안이 기저귀천지가되여버립니다. 그것을방안줄에 너러서 말이면 남보기흉하고 그러기에 이것을 어떠케 보기실치안흔방법을생각하여야 겟습니다

一、마로구석가튼데를 리용하야 큼직한석냥귀가튼것을 여서 드리노흔다음 귀각아노코 그속에 화로불을 피구니에 나무토막을 여러게 걸치고 그우에 기저귀들을 너러말리면 좃습니다

二、노피 다섯자가량되는 항석통을 만드러서 그속에 화로불을드려노코 아구니에 나무토막을 여러개걸친다음 기저귀들을 걸처말리면 바갓에서는 잘보이지도 안코 말릴수잇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기저귀를 말릴때는 늘손질을 해서 기저귀가 불에 타버린다던지 화로불이 마루에 떠러지지 안토록 늘보지안흐면 안됩니다

지우산때는법

비에 저진 조이 우산을 그냥 강한 햇볏헤 펴서 말리면 조이가 상할뿐만 아니라 대살에 칠한 옷칠이 벗겨저 버립니다. 그럼으로 물에 저진 우산은 그대로 두지말고 반쯤 펴서 응달에 말립니다. 그리고 다 마른뒤에는 잘접어서 대살에 기름칠을 해 두면 조흡니다.

만일 뚜러진데가 잇거든 말릴적에 고치는것이 조흡니다. 그러는데는 생강집에 발불을 개어 튼튼한 조선조이로 바릅니다. 그런다음 마르거든 그우에 기름을발라 유지처럼 제려버리면 그만입니다.

여름되니 배ㅅ탈
애기들의배탈단속을 잇지마십시요

기후와 신체와의 관계는여름의그것과 겨울의그것이 크게달려집니다. 추운때는호흡기병(呼吸器病)이만흔데신에 여름이되면 위장병이 만허집니다 날세가작고더워지고 장마가져서 습기가 만허지면 체오의발산이 곤난해저서 몸이찌뿌듯하고 무거워지며 작구게으름뱅이가되여 집니다 이것은누구나 겪거봄직이겟지요 이러케 날세가더워지면 신체표면의 혈관이 느러저서 혈액이 신체의표면혈관을 만히 흐르게됨으로 위장의기능이 약해지는것입니다. 또한 체온의근원이되다는 음식을 적게멕히는까닭으로 무엇이던지 찬 음식을 먹게되며 이것으로 하야금 체온의 조화에 일시적인효과를 저와서 해갈은시키지마는 그러나 이러한 찬 음식이 속에내려가면 위의점막(粘膜)은 일시빈혈(貧血)을이르키는까닭에 소화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르로이러한 신체의상태를 무시하고 소화가잘되지안는 음식을먹는지되다고 극도로 찬것을마시므로 위장병이생기게됩니다 이러케는 어른이나 어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위생에대한 판섬이적은까닭으로 그저제맘대로 폭음, 폭식을하야 어른보담더만히 급성위장가다루(胃腸加答兒)를 이르키게됩니다

이러케 여름은 위장을탈내기쉬운때이므로 음식을먹는데 주의하야 소화잘안될음식이나 찬 빙수가튼것을 너무만히먹지안토록하며 잘때도 배를 잘덥퍼서 위장이 탈나지안토록 해야합니다 위장에 탈나지안흘 음식으로는 무엇이든지 기름기가적고 청조한날물가튼것에 떼어잘씹혀주지요 가업습니다 소화가잘되고몸되는것은 음식먹을때 잘씹으면 [illegible]에탈이업고 분량이알마즈면 대개소화가잘될것이나 그러치안코 지나치게만히먹으면 위태하므로 여기서 무엇이조코 무엇이나쁘다고 단언은할수업스나 어린이들은 단것을조화하는까닭에 맛이조흐면 지나치게 만이먹을염려가잇스므로 감독을잘해야됩니다

변또싸는데도 열가지주의

여름한철은 파는음식이 겁나 집에서 정결하게 맨들일

변또싸는일을 매일겪그시는 여러분의 고심도 고심이려니와 이러케 날이 더워지면 조그마한 부주의로 인해서 반찬이상하야 먹고중독되는수가 잇습니다. 그럼으로 그런일이 업도록반찬에 정성을드려가지고 가는 아이들을 만족하게하고 먹어서 영양되게하야 완전한벤또를 도모하도록하십시요

저간에 영양연구소에서 변또싸는데 긴요한 열가지조목의주의사항을 발표하엿스니참고삼으십시요

一、요즘과가티 날더운때는 변또를 반드시 집에서 싸도록해야합니다 매일 학교에 가지고 가는 변또는더 말할것업고 들노리와 여행할때쓸변또도 집에서 싸는것이 제일안전합니다.

二、밥과반찬의온도는 가튼정도로해서 싸야합니다 밥은찬데 반찬이 더웁다던지 반찬이찬데 밥이더웁다던지 하면 상하기쉽습니다

三、재료에부러잇는 미균을죽인다던지 또상하는것을 막는데는불에잘익도록 굽는지 조리든지 해야합니다.

四、맛이 반찬재료에 딱배이도록 조려서 변또쌀대에 국물이 업도록합니다.

五、먹지못할 생선뼈와 머리는 애초부터 빨라내고요리를하십시요.

六、잔가시가만흔 생선은애기들이 귀찬허서 안조와하니 되도록 안쓰는것이조흡니다.

七、양요리에쓰는것을 변또에 넛는것은 상하기 쉬우니 넉지마십시요

八、될수잇는대로 잘 조리고 잘 구어진것을 골라 물끌도조케요리를하십시요

九、한입에 먹을수잇는 재료를 잘게 써러너흐시요

十、장조림 처럼 잘상하지 안는 조림으로 해넛는것이 조흡니다 변또를 싸기전에 다시한번 불기운을드리면안전합니다.

그리고 끄트로 제일긴요한것은 반찬맨드러 노흔것에 파리가 안찌못하게할것입니다. 아무리 잘조린 반찬이라도 파리가안저되면 불결한것이무터 쉬상하게됩니다.

長篇小說 찔레꼿【46】

金末峰 作 金熙超 畵

빗과어둠【十七】

서재로 드러간 두취는 오날배달된 우편물을 하나식 하나식뒤지는동안에 명경애가 천천히드로왓다

경애가 한시간전에 아버지를 맛나뵙겟다고 전화를 걸엇든것은 민수의 말대로 한달연기를 간청할것과 또우연한이가 그로지를 사겟다고 작정이 되엿다는보고를 하려든것이 아니엇든가 그러나 그것은 다한시간전이까지의 일이엇다 임의 정순과 그의애인 민수가 두취 딸이라는 자기를 리용하고잇는 음모가 발견된이상 언제까지나 그들의 장단에 춤을 움자다든 업나고생각한 경애의 얼굴에는 어떤비상한 결심이번득이고 잇는것이다

『아― 또 너어머니와 가정교사사이에는 웬도 말성이냐온』

두취는 손에들엇든 편지를 테불위 한편으로 밀어노코

『넘다안다구 그리는데 대체무엇을 를 가지고 그리는거냐』

경애는 그런것은 물을것업다는듯이

『아버지 저전화한것 기억하고 게서요?』

하고 뱅그레 우서보엿다

『응 그리고 난 웨도 일즉드려오렌니 차를 할리라고』

『아버지 저려행을 좀하구시퍼서요 그래 돈을좀 줍시사고』

딸은 고개를 가우둥이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드려다보는것이다

『려행은 또갑작이 무슨려행이냐』

두취는 못마당한듯이 눈섭을 찌긋하고

『그러치말고 집에잇거라 인제 경구도 도라오고하면 심심치는안흘레니……발서횡빈까지와서』

하고 조두취는 담배에다 불을 붓치는것이다

『올바는 세게일주까지 식하시면서……저딴지 이태리까지만 가게해주서요네 반년동안만 잇다오겟서요 조흔 그림구경좀 하고 올레니까요네?』

『애 경애야』

딸을 부르는 조두취는 침통하리만큼 엄숙한얼굴을 정색을하고

『여자란 웬만침 배웟스면 가정으로 드러가는것이 제일 안전한게다 결국 여자의 행복은 가정에 잇다는것을 더워여지로 이저버리려고만 드는 나뿐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행복이니깐요』

경애는 속으로 『아버지가치 위대한 남성이어 하고 비우스면서도 때 잇서야지오』

하고 어깨를 흉칫하엿다

『아―니 나야무어、』

두취는 지금딸의 입에서 나온 찬사(讚詞)를 어떠케 들엇는지 그는 후―한숨을쉬고

『애경애야 내가 정말 네눈에 위대하게 보이느냐?』

지정에서 못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엽마쯤 미안을 느낀경애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여보엿다

『아버지사회에서는 아버지만큼 위대한이도 드물지머』

하고 경애는 속으로 자기자신에게 변명을 하는것이다

『그게 다른게 아니라 돈이잇는까닭이다용 돈이잇는 까닭이야 내가 두취니 무어니하고 행내는것도 결국 금전의 세력이라말야 나보다 훨신더 노프한학교를 나오고 변설도능하고 두뇌도 훌륭한 사람이업마나만흔지 아느냐 하지만말야 왜내가 그이들 머리우에서 큰소리를치고……』

아버지의 장한 설명을 뭇고 안젓는 경애는 태풍이 지나간 사막과가치 황량한 자기맘속에 빨간록버슷과가치 나라난한가지 생각을 되푸리하고 잇는것이다

처녀의 순정을 짓밟히지 사변동안에 경애는 눈으로 입으로 며닥자를 짓밟아왓는고 그러나 지금부터 그는 눈과입으로만은 부족한것이다

부딧치면 곳 쓰러저버릴만한 강력(强力)의 전첩망을 안고 사나히들의 진중으로 돌진하리라 그리하여 자기가 빼앗기만큼 다른사람의 행복을빼아서추리라 이러한생각이 악마의 탐조등(探照燈)가티 경애의 머리속에 이상한 광명을 던지고 잇는것이다

그는 민수를원망할 아무런까닭도업다 정순을 저주할리유도 물론 업는것이다 그러나 그가 우연히맛난 민수때문에 그의잔잔한 정열이 다시눈을 뜨게될때 어러는 사실이 그의명은 상처에서 선혈을 솟게하는 괴롱어되것이다

『그러니말야 내가 유명환과의 결혼을 주창하는것도 결국은 ―말하자면 음―』

『돈이란 말이조?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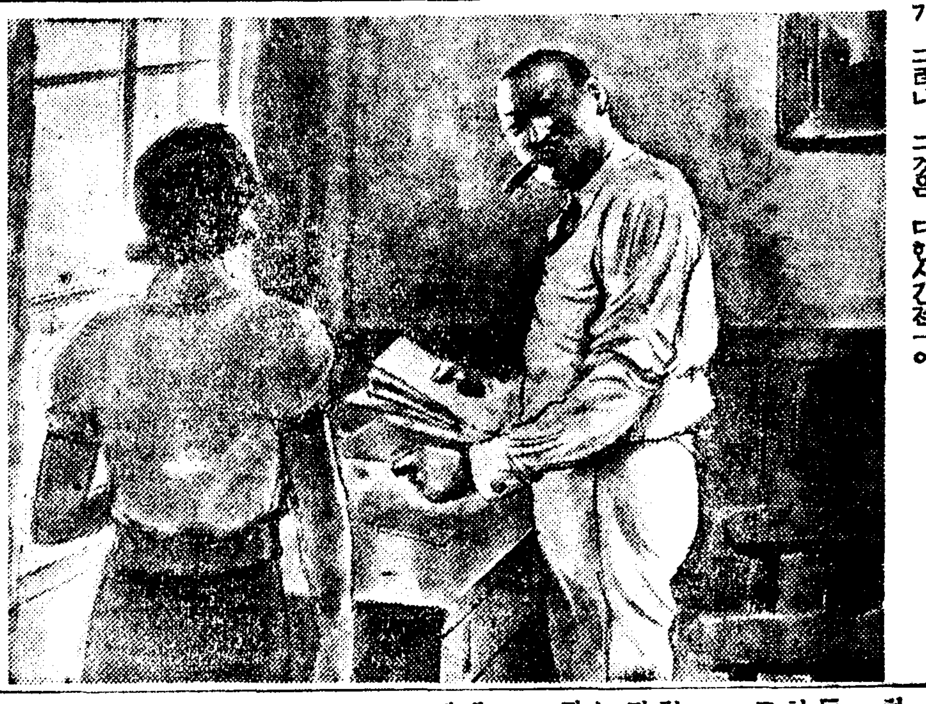
『얘, 백만원의 돈을 가진사람이면말이다……』

『아버지 이왕이면 한일천만원쯤 가진곳에서 청혼이 왓스면 더조켓는데요 호호호』

경애는 깔깔거리고웃고

『나포리까지 가는려비는 아니주서도 조흡니다 꾸일테가 잇스니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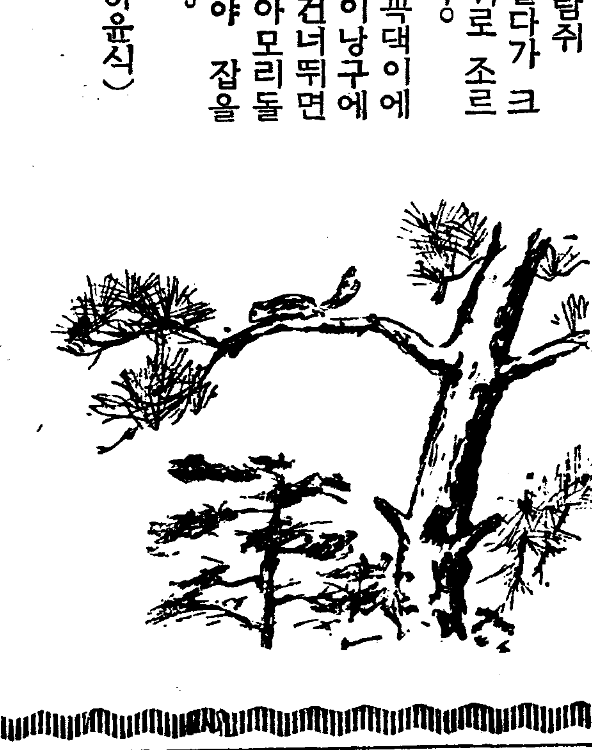
조두취가 무어라고 대답을하랴고할때에 경애가 다람쥐처럼방을 나가버렷다



다람쥐

영리한 다람쥐
땅바닥에서 놀다가 크다란 소낭구위로 조르르 기어올럿다。
노픈가지 꼭대기에서는 날세게 이낭구에서 저낭구로 건너뛰면서 다라난다。아모리돌팔매질을한대야 잡을도리가업섯다。

(글쓰사람 하윤식)



森永ミルク (모리나가밀크)

母乳가不足한乳兒에게는森永밀크를멕이는것이第一安心이됩니다 榮養이 新鮮하고、發育을爲하야貴重한비타민이豊富하게드럿슴으로 乳兒는틀림업시튼튼해지고 로실로실살이올읍니다

森永製品朝鮮販賣株式會社

猪印 のみとり粉 (벼룩 잡는 약)

日本産業最高賞綠綬褒章御下賜

全島를 安住의極樂國土로한다

파리, 모기, 벼룩, 빈대, 박휘를退治하라

C—2

本舗 株式會社 安住大藥房 大阪大仁

現代朝鮮女流文學選集

定價一圓 書留送料二十九錢

京城太平通 朝鮮日報社 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

ナAS—2

サッポロビール (삽뽀로비ー루)

アサヒビール (아사히비ー루)

新鮮한 이 한잔이!

今日의慰安 明日의 活動力의源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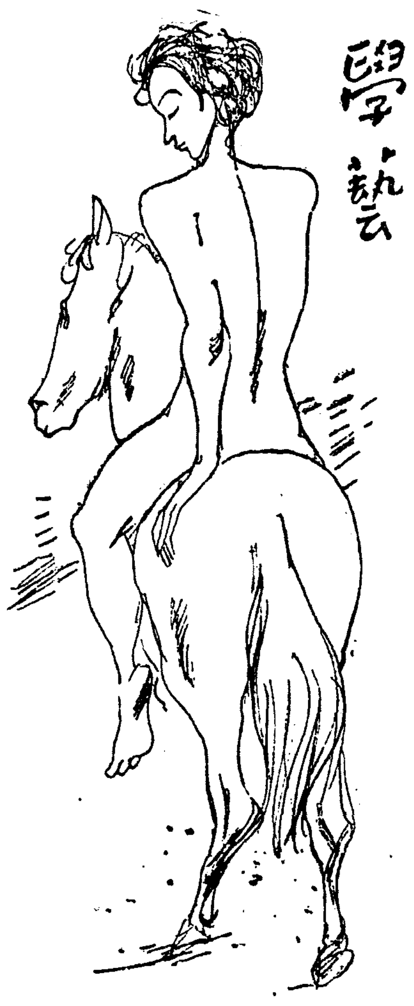
이베ー루한瓶의榮養價는 鷄卵四個또는牛乳三合에該當함

朝鮮麥酒株式會社

初夏風物詩

하옴없시 나온 午後의 散歩。微風이 이끄는대로 물소리따라 여기를왓소。아카시아 꽃 향기는 한창 蕭郎한데 시내ㅅ물도 여기와서는 하늘거리기만하고 흐르지는안소。무진하여도 그치지안는 이야기、여기는 길이막혓스니 언제는 瑯瑯한 玉佩를 울니면서 저 다리우흐로나 거니러볼까？ 그래도 도라서기가 하도 못그려워 鬢毛를 스치는 가지려운 버들잎을 그대로 밧고잇노라니 白金실가튼 午後의 볏살은 하얀「보일」양산꼭에 잘잘 넘치고잇다。

學藝



知識階級의 辯護

—휴ㅣ맨이즘의名譽를爲하야—

⑥ 白 鐵

文化와知性이 危機에떠러지고無力해지고 敗北한뒤에 그失地를奪還하는 態度로서 決意된것이 휴ㅣ맨이즘이엇다는것이다 同時에 그것은

今 日의知識階級이 知性의自由를 回復하고 分裂되人格과 破壞되엿든個性과 分身된 自我를 過去의混亂에서救하고 그들의近代的인 個性을全面으로 統一하고歷史的으로 揚棄시기려는行爲인것이다 近代知性의 歷史에잇서 知識階級이科學의凱旋과 知性의自由를 부르짓든時代에서는 知識階級의 知性化하는方向과 現實의 方向은 서로떠난것이아니엇다 知識은다는것이 同時에自己의生命과 肉體와人格과 個性의 成長인그時代에잇서는決코 理性에서 肉體와感情이 分離된것이아니며 敎養과行爲가 各己分離된것이아니며 自我와理性이 서로對立된것도아니오 언제나 統一된一體로 前進이요 成長이엇다。그러나 그뒤에 近代의 歷史의覇變에서知性이離脫되여支配的現實과 그것이背馳되는때에知識階級은 自己知性의 方向과現實에 步調를 마추수업섯고 드듸여

自 我와 知識사이에 統一을 기할수업게되엿다

여기서 知識性은 知識人間의肉體를떠나 純粹한知識으로일으게된理由가잇다。近代의 知識人과作家의 文學的傾向에잇서 分身과 自己分裂은 이저그곳에서 시작되엿고 成長되엇이엇다。여기서 知識階級은 個人으로는 社會와 分離되고 敎養으로는 自我와知性이 感情과肉體를떠나서 分離되엿슬뿐아니라 한個性에잇서서 外部的인것과 內部的인것이 各기獨立되고 精神的인것과 物質的인것이 隔離되고 가튼 內部意識에잇서도 部分部分이 서로떠러저서 서로排斥하게되엿다。自我의分身 [illegible] 潛在意識의 [illegible] 文學의새로운世界로서 發展된事實이여기에잇고 새롭은 文學의情熱로서 그런것에 偏[illegible]것을 理解할수잇다 이때에잇서 그런文學의 境地도 現代에잇서서 文學의境地가 될수잇다든가 인테리겐차ㅣ가 그런境地에

當 着한限에서는 그것을飛躍할것이아니라 도리혀 그것을 경험하고 苦悶하는것이 可하냐 不可하냐는 別問題로하고 하여튼그것이 極度의自我分裂의 現狀이요 그文學的情熱이란것이 健全한人間精神이아니고 極히 아브노말한 情熱이란것은 理解해야할것이다 그리고 近世特히 大戰以後에잇서 人間의精神이 一般으로不安、懷疑에 떠러지고 精神의危機、知識의敗北等의 不安、否定의精神이 이世紀의文化思想과 文學潮流를 支配한것은 그때문이다。即 近世에와서 人間으로 知識階級은不安과懷疑와 否定가운데 그리고 厭世와 絶望과 病的情熱가운데 知識階級의 病弱한몸은 瀕死의 狀態에 處해잇섯든것이다

그러한知性의敗北史를 念頭에두고 今日의知識人의 態度로서 휴ㅣ맨이즘을생각할때에 그積極的인意義를 明白히是認할것이잇다。

反 휴ㅣ맨이즘은 그런不安과危機와 敗北에 抗하고 知識人이 再起하는態度요 分身된 個人을統合하고 分裂된自我와 知性을 綜合하야 知性을 再生하려는態度요 또行爲다

그것은 生理的으로보면 病弱한狀態에서시 回生이요 個性的으로는 喪失한個性의回復 나거서는 完全한 個性으로서의 揚棄的統一이요 根本的으로 歷史的意味에서는 知識階級의人間으로서의 再生이요 新生的인意味를가지는것이다 知識階級의 主體로서 볼때에 그 휴ㅣ맨이즘이 얼마나 積極的인現實性과 重大한意義를 가진것이라는것은 누구나足히 理解할問題가아니리요

그意味에서 現代의資本主義現實에서 文化를擔當하는 知識의 情熱로서 휴ㅣ맨이즘은 커다란 歷史的現實的切迫性을 가지고잇는것이요 共通된理由로서 우리 文壇에서도 그것은 누구나 體內에

切 感하는意慾이라고생각할때에 그것을가르처 唯心的이라느니 非唯物的이라느니하는 閑散的餘裕를許할問題가아닌 줄안다 여기에對해서 나는만흔 說明을加하지안는다 다만韓雪野氏가튼이가 지금새람스럽게 그런素朴한意見을披瀝하는것이 섭섭한일이다 더구나 以上과가튼 나의主張에對하야 그解釋의態度가 小市民的이니 힛슬러的이니 하고 小兒病的으로絶叫하는 金龍濟、林和君等의 氣質에는 오직輕蔑을不惜할뿐이오 또한知識階級의 思潮로서 휴ㅣ맨이즘을 正當히理解하려고하면서도 그것을個性의限界라는 意味에서 今日의지ㅣ드的인 行動그것에 머무러버리는 兪鎭午氏의태도에도 不滿을 表하려고한다 今日의휴ㅣ맨이즘은 언제나 그個性的限界內에 머저질것이아니라 結局그 歷史에 到達할歷史的 契機를現代의 非휴ㅣ맨이즘的인 現實가운데 가지고잇기때문이다。

追記 紙面관계상 이論이 發展될곳까지 論及이되지못하얏다。그럼으로 이論을批判하는분은 다음의論『휴ㅣ맨이즘과우리 文學의 倫理性』問題를 併讀한후에 執筆해주기를바란다 (完)

漢詩募集

題 落花

押 春

(限六月五日)

漢陽朝의 政治家群像 ⑥

湖 岩

賢相黃喜

太祖의創業도太宗을 지내여世宗에와서 버로소그基礎가確立하게되바 世宗朝의賢相으로 黃喜를말해야한다。

黃喜의號는 厖村이니 世間에 이미定評잇는 賢相이다。黃政丞이라면 街童巷婦도 모두 稱頌하며 그의逸話傳說이 人口에 만히膾炙하거니와 業績가 隆崇한분수론 指摘할만한 業蹟이 적다。

그는 그럴바게 업는것이 時代가 昇平하고 其時 君主가 偉大하던때문이다。前에는 有能하신 太宗으로해서 後에는 有德하신 世宗으로해서 黃喜의功績이 獨特한光彩를노치못하엿다。

그는高麗成均學官으로 李朝에 出仕하야 太祖로부터 四世를歷事할새 太宗의知遇를입어 政務는勿論이요 宮中秘密까지 반드시 諮詢함에 이르럿는바 當時戚臣이 橫肆하므로 그네를 덜기爲하야 黃喜에게 密旨를 주신것을보아도 그信任의커슴을 알것이다。그러나 太宗께서 世子讓寧을 廢하려하매 黃喜는 反對하엿더니 여기大怒한 太宗께서는 世子를 廢黜하는同時에 黃喜도 廢黜하엿다。帝王中에 政治家인太宗께서 黃喜의 賢人임을 잘아는터이라。다시廢黜에서 召還하야 世宗께 大用하도록 付托하셧다。

世宗께서 黃喜의 手腕을 먼저江原一道의 荒政에 試驗해보시매 과연凡人이 아니므로 議政府贊成兼大司憲을 삼앗다。얼마 아니되여 右相에 陞任하야 左相을지내여 領相에 이르니 무릇 首相位에 잇기는 廿四年에 人主의 股肱이 되고 國家의 柱石이되엿다。

世宗께서 中年以後에 制度를 刷新改革한것이 흔이 잇섯는데 黃喜는 대개祖宗의舊憲을 輕變함이 不可라고 諫하엿고 疑獄이 잇슬때는 매양寬典을 主張하야 어대까지 宰相의大體를 잃치안헛다한다。그리하야 黃喜는 世宗을 補佐하야 卅年間의 黃金時代를 現出하엿다。그는 功成名遂하고八十七의 高齡으로 世宗晩年에 致仕한後에도 元老大臣格으로 國家大事가 잇슬때마다諮詢에 應하엿스며 九旬에卒逝하니 長壽하기로도 有名하다

罪囚와 喪輿

朴 泰 遠

여곳의 어린 아이들도 달은 洞里의 아이들이나 한가지로 遊戲들은 다 하고잇다『숨바꼭질』『땅뺏기』『술래잡기』또 特히 계집애들『공기』『잇센、도ㅣ까、모모아다마』……

모다 조코 또 재미 잇는 作戲이다。내 딸도 좀자라면 반드시 그 노리에 參加할것이요 그것을 毋論 나로서는 禁한다든 그러할 아모런理由도 그곳에는업다 그러나 나는最近에그 어린이들이 종종 罪囚作亂을하고 질기는것을 發見하고마음에조치 안헛다。

分明히 그러캐도 咫尺사이에감옥소가 잇는그까닭이다 하로에도몃次例式 刑吏들은罪人의 손을얽고등을 묵거이곳으로 披同하여 왓고또 한결가티 붉은옷입힌 죄중이들은 개인날 바테 나와 부지런히 일들을 하엿스므로 이 洞里의어린이들은 엇사리 그것을 볼수 잇섯고 본것은 흉내내는것이 또 한재미잇는 노릇이여서 그래 그들은 꼿잡遊戲이된 한아이가 새끼나 줄때줄 罪囚으로 罪囚가된 멋아이들을 잔뜩 묵거 가지고는 골목안을 도라다니는 그러한 形式의 作亂을하며 서로들 매우 滿足한듯십다。

이것은 分明히 子女들에게 잇서 몹시 좃치 못하다 할수밧게 업슬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遊戲도 罪囚의 그것에 끈치지안는다。罪囚를 나서 큰길에는 罪囚를 실은 것말고 또 喪輿를 담은 金빗自動車가 하로에도 몃번이나 無學재고개를 넘나 들엇다。대개고개넘어 弘濟院에 火葬터가잇는 그 까닭이다。

그래도 自動車는 또 오히려 낫다。그것은 爲先 빨리 달릴수잇는 수레이여서 瞬間사이에 우리의 視界를 버서나버린다。그러나 喪輿行列은 그러한것의 行列은 느리고 길고 稱에 마추어 부르는『에ㅣ홍』소리와 또(아마 어리석은 생각에 禮式을 가추은우에도 더욱이 壯하고 華麗하기를 꾀하여서의 일이겟지…)軍隊를 사서『내故鄕을 離別하고』와 가튼 通俗俗曲을 吹奏하게 하는등 귀와눈에 함께 언짠키가 여간이 아니다。

올正月에 첫돌을 지낸솔한인 내딸이 아즉은 動靜의 속에 어피여 그壯嚴한 行列의 內容을 알리이 업스나 이제二三年을 못다가 서울은이의잔동이를 비는 일이시 제발로 혼자 거리까지 뛰여 나와、그러케 어린 雲의 生이 벌서 人生의 無常을 안다든 그러할 것을 나는 勿論 마음기피 끄리지 안을수업다。

그래 이래 저래 수히딸은 洞里로떠나야 하겟다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엿드니、그는요좀는 瞬間의 變遷을 생각해내는 모양이엿스나、내딸보다도 當時山 自身을 爲하여 여기는 오래 머물러잇을수업는곳이다。

『門밧이라니까 그말만 듯고 꽃(그럼손狀가맑고 조용할께라고 말한이도 잇섯스나 매우 遺憾이라할수밧에 업는것이이곳은決코 조용하지도 安靜가 맑지도안다

그러면서도 재차게 구석진 꼿이되여 일은바 都心地帶를 떠나서 집을 나설때 元來가 劇場하나는 그것이 別로 急한볼일이라든 그런것이 아닌 境遇에도 또바 또바 電車를 타지안흐면 안된다

가난한 내게잇서 그것은 딱한 負擔이다。

나는 곳잘 停留場에가 서서 좀처럼 오지안는 電車를 기다리느라 지치며 마즌편언덕진 바테서 일하는 罪囚를 보고 獨立門께서 들려오는「에ㅣ홍」소리를 듯고 참말 어듸 맑은곳으로 수히 좀 떠나야 ……하고 눈살을 찝푸려본다

△△△
△△△

香山紀行 (四)

鄭 飛 石

上院庵

午後三時頃 다시降雨。이제나 저제나하고 개이기를기다린것도 이제는 虛事라고 五時頃이되자 團員一同은 降雨를 무릅쓰고 豫定의코ㅣ스를 強行軍하게되엿다 一同은 雨備로 廣木네자式사서 등에휘두르고 벌서時間이늣다는 旅館主人의 忠告를 들은둥만둥 上院庵으로 오기始作하엿다

길은 애초부터도 돌벼랑이엇다 아슬아슬한絶壁을돌고 짜릿짜릿한 棧道를 지나기 무릇十餘次를거듭하자 눈아페白廣木을 느리운듯 압길로 콱막는것이잇스니 이것이바로 龍淵瀑ㅣ여기서 紀念寫眞을 撮影하고 다리를 쉬일새도업시발을옮기니 발걸음마다 위래위래하여 코속은 煉獄가튼데 가슴은 突然히 달냥거린다 눈을치뜨면 치켜볼수록 層岩絶壁에 屹然巨峰이요 左右로살피면 老幼雜木에 寸尺을가릴수업고 발미를 바라보면 百仞懸崖에 條條만푸르럿스니 무엇을차저 어듸로가는길인지스스로 알길이업다。

가도가도 물소리뿐이요 가도 나무뿐이니 이길을그냥 가면 내종에는 必是 구름만이잇스리로다 그런대로 가노라니、아폴막어서는것이 커다란바위 바위에는『阿彌陀佛』이라 새이고 한편에는『옴ㅣ아리다라 사바하』라고도 새여잇다

案內僧에게 뜻을무르니 누구나 이뜻을잘 모르나 아마 기에 登攀하는 사람이 이미레 범의발자최를 따라 길을일헛다가 마츰 눈우의 범의발자최를 더듬어여기까지 올라왓다하여 이름지어 引虎臺 引虎臺에오르니 眼界는廣濶하여 群峰이 아!그뿐인가 마즌편 바로눈아페보이는것이 左로龍淵瀑 右로散珠瀑!마즌山이건만 騷亂한소리에 귀는속時로 멍지가 백인듯하고 입은 너풀거리되 音聲은 들리지안코니 오직 視覺만이 感歎에 차잇슬뿐이다

四五百尺斷崖를 내리찟는瀑布가 左右로 이마를맛대고서 서 永遠히 競爭하는것도볼 만한景槪이니와 大體 山곡대기에서 웬물이 이러케만히쉬임업시 흘러내릴가 그도疑問이 아닐수업다 두개의瀑布가 내리찌여 合水되는곳은 千萬蛟龍이 亂鬪激爭하는듯 銳刃白牙에 殺氣騰騰하다 다시速步를니여 上院庵에 오르니때는 正히七時 幽寂은 黃昏에 물드는데 雲霧속에 僧侶는길손을 마저드린다 上院庵에오르니 아까 깜아케 노피보이든 龍淵瀑은 바로 발미테것이요 새로六百尺의 長瀑인天神瀑이 碧空에서 소사난듯精神을恍惚케하니 이것이 진실로

飛流直下三千尺
疑是銀河落九天

이아니엿든가?

上院庵은 距今七百五十餘年前의 建物이라고하니 七百五十年 여기에 어떠케이런 巨廈을지엇슬까?七百五十年後인今日에 우리는 알음으로오르기도 벅찬데 그옛날 이材木들을 어떠케 運搬해왓는지鬼神만이 알노릇이다 天神瀑은悠然히 上院庵의 마당기슭을도라 다시 龍淵瀑을이루엇는데 龍淵瀑바로곱대기의 磐石에 瀑洞에서 잠깐 쉬여가지고悠然히 蓬萊라사람이

神仙遊宅
雲臥洞天

이라고 彫刻한篆字우로 물이 흐른다 오!올토다 이곳이야말로 神

學生作品

季節의 感覺 (三)

延專 李 大 均

나는 한참동안 洋服에다손을넛코 沈默의 散策을 繼續하얏다。어언덧지나의거리 散步는 無味淡泊한것이다。只今나는 五月의 푸른길을 밟으면서 거리의 中央을 힘업시 것고잇다。거리의 午後는 매우奔走하다。電車가 닷는다。自動車가 닷는다。自轉車가 닷는다。郵便配達夫는 몃千里를 박게서온 電報와 書信을 들고 疾走한다。商店의 店員은 方今 電話로 注文바든 물건을 싯고 自轉車로 疾走한다。거리에서 거리로 몃千臺 몃萬臺의 自動車와 自轉車가 길고긴行列을짓는다。電車는 間斷업시 停留場마다 사람을 吐하야 노코 다시 사람을 갓득먹고 뛰여간다。「라듸오」에서는 間斷업시 最新「뉴ㅡ스」를 放送하고 新聞은世界의 새消息을 가득실어가지고 配達夫가 거리에서거리로 힘차게 뛰여단긴다。奔走하게 몰려다니는 그들의 얼굴에는 活氣가 흐른다。그러나 그것은 眞正한意味의 活氣인것 갓지는 안타。차라리 緊張의 假面인것 갓다 째두러진 文明에게 시달리는者들의 注意의 連續이 꾸며내는 活氣의 擬勢인것갓다。

서울의午後는 都會人의 憂鬱의 發散으로부터 始作된다。午後가되면 서울의 名士怪物 모ㅣ던男女等等의 行進이 始作된다。그리하야 本町通 鍾路地帶의各料理店 食堂 빠ㅡ 茶房等의구석구석에 遊興 社交 密會 陰謀等等의 風景이 展開된다 그곳에다 倦怠와 疲勞와 金錢과時間의 봇다리를 제각기 끌려놋는다 그리하야 過敏을 지나처麻痺된 神經을 刺戟시키려한다 그리고도 沈滯한 氣分을 明朗한氣分으로 바꾸려하고 不滿한生活을 一時나마 이즈려고 하는것이다。

서울의 젊은사람들이 거리가는 그날 그날의 行動이오 表情일것이다。午後의거리는 점점 늘저가 바로 黃昏의 빗이 몰오!아! 그리하야 瀟洒夕陽이 흘러드러 西空의 한끗트로 太陽은 하로의 銀粉한 光彩를 거두며 지금 地平線저쪽에서 來日을 約束하며 姿態를 감추려고한다。우리들의 하로의 生活은 끗낫다。

어두운 밤은 차저드럿다。그러나 나는 집에도라갈줄 모르고 鋪路를向하야나의 발을옮기고잇다ㅡ마치 집잃은 어린애처럼ㅡ참으로 定處업는人間의 발길의 散步다。마치 無心한 世代의 花園갓흔것은 느낌이잇나。밤이되면 잇지안코 꼭 차저드는손님 ㅡ電燈은 오날밤도亦是 잇지안코 이거리에차저드럿다。밤이되면 모ㅡ든 社會的 罪惡과陰謀와 질투 矛盾 싸홈 不安이 暗黑속으로 스러지는 듯하다그리하야 참으로새世界가 이땅에 차저드는듯하다。밤은 平和의使徒를 地上에 보내는것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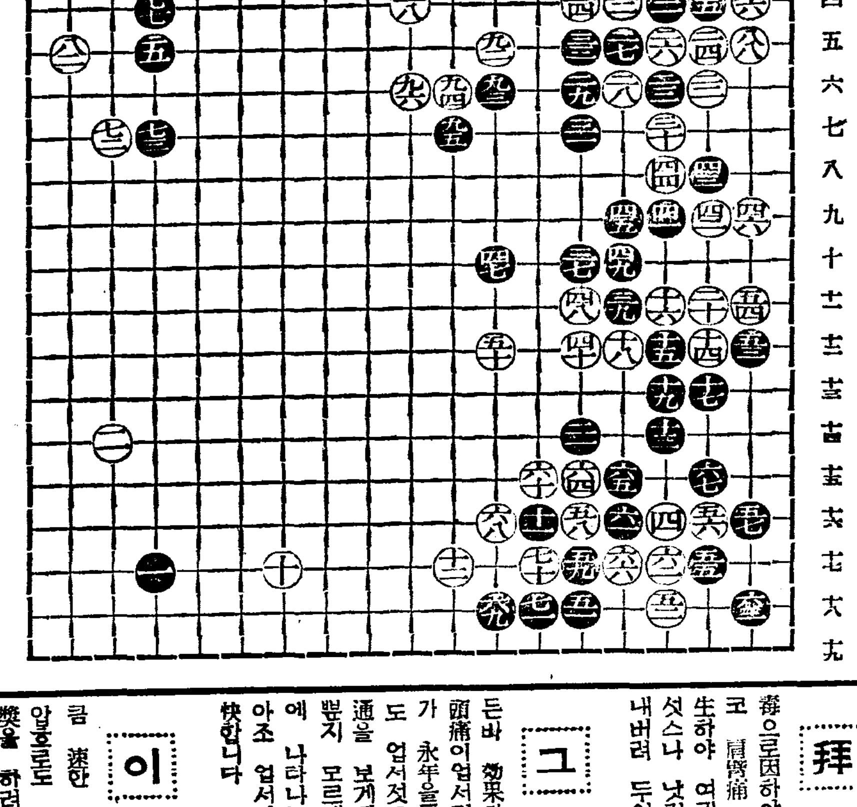
新綠의 街路樹에뜬 電氣빗은 地上에 綠色의 金鳥가 나려와 안즌것갓다。물결치는 白蛾의나래에 綠色電光이 흐르고잇다。都會의 밤은갓電燈의 不夜城이다。商店의「네온싸인」은間斷업시 글씨를쓰고 紅燈綠酒는四方에歡樂境을이룬다

綠陰의밤서울! 戀愛란 오늘가튼 이 愛行脚! 靑春 男女의戀愛行脚! 現實속에서는「부르조아」놀의豪華로운 生活의한 形式이며 享樂의一型이다 人間들은 封鎖當했든 지난季節의 憂鬱한 生活氣分을 거리의 綠陰속에 分散

本社主催 圍棋對局譜 (6)

互(白) 盧 史 楚
(先)(黑) 丁 奎 春

● 卯의二 ○ 未의五 ● 丑의三 ○ 子의二 ● 丑의二 ○ 乙의四 ● 乙의三 ○ 乙의五 ● 乙의二 ○ 戊의三 ● 戊의二 ○ 辛의五 ● 辛의六 ○ 壬의六 ● 壬의七 ○ 癸의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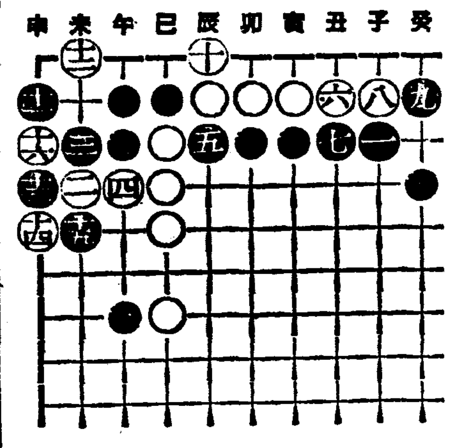


蔡極文 觀戰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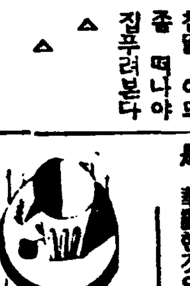
白이 中央黑包圍策을 利用하나 自體未完으로 退縮心이 尙存하고 南邊潰圍一路를 結末完備하니 黑의 展開方途가 어렵지아니하릴 推言하라

001183

參 考 圖



紙上顧問



【問】貴社先生께 뭇사오니 下敎하야주심을 伏望합니다 一、小生은 二十一歲靑年이온대 世界地理를 細密히 硏究코저하와 或世界各國別地圖로 朝鮮地圖와가티 細密히 硏究하기에 不足함이업시 記入해잇는 地圖가잇사옵니까 잇사오면 其販賣所 住所를 下敎하야주시면 感謝하겟나이다 二、地圖專門販賣所가 何處입니까

【答】東京市神田區에잇는 三省堂發行인 最新世界地圖가잇습니다。專門販賣店은업습니다。(係)

【問】顧問先生任 물으는것은못는것은두끄럽이 안일테지요?
一、文士가 되려면 多讀多作하라니 大體어느종류의 冊을말하요 名作? 知識(知識文學)?
一、그리고中學三年中道退學者인대 어떠한 계단을밟어야 文士가될가요?(特히小說)
一、日本作品吉屋信子作이文藝品입니가?
우스시지말으시고 下敎하심을바랍니다 大阪 仁泰

【答】世界名作을 만히읽고또만히지어보는것이 조타는말입니다。三年中道退學이라도 素質이잇고 그우에 또만히修鍊하면되겟지요。文藝品이라고 합니다。(係)

腦梅毒이 特히 흔한때

부름에도 注意

腦에생기는梅毒 이것은 梅毒中에서도 第一困難한것으로 게다가 또한 大端히두려운것이다 더욱이 初發에는 發病時에 가장흔히볼수잇스니 梅毒에 疑心이잇는사람은 充分한 警戒를要하게되는다。

지금은 예전과달라서 코가떠러진다든지 목이쉬인다든지하는 것은 比較的 적어진세음이나 이러한 潛伏性梅毒에서 생기는腦梅毒이 非常히만흔것이다

腦梅毒의初期

腦梅毒의 初期는神經衰弱과가티 때로는 神經痛이 찌르륵하고 電擊性으로 다리아래로 흘러나려 座骨神經痛이나 腰痛이 생긴다 그리고 視力이조치못하고 頭腦가 흐릿하야 記憶力과 注意力이 缺乏해지며 날로날로 菌毒은 漸漸腦脊髓에 繁殖하야 그 大腦를侵害하게되고 리와가티 單至反射作用을 할뿐으로 全身의筋肉이 麻痺되야頭腦는 全혀 바보가되고만다

그리고 惡性인것은 必然的으로脊髓癆와麻痺狂을이르키고 다시손대수업는일을만들고만다。

驅梅法의進步

一般으로 腦梅毒은 全治되지 안는것처럼알고들엇스나 이것은 適當한驅梅療法을게을리하는사람만이고치지못하는것이니 假令第四期의惡性梅毒者라도 充分히驅梅療法으로 腦와脊髓에繁殖하는 梅毒菌을殺滅식히면 훨씬 나어질것이다 即이菌毒만撲滅하고 보면 手足마비言語不調가 多少잇다고하여도藥이以上進展치안코 生命을건질수잇는것이다。

驅梅藥의選定

그러나 이러케하는대는 專門家의診察을바든지 驅梅內服藥으로 家庭治療를實施함이 必要하다 그리고 家庭治療를하게되는때는 驅梅藥의選定이 가장緊要하니 于先十餘年來 梅毒專門藥으로서信用이잇는베루쓰丸을 服用하는것이가장安心되는일이다 더욱이 血液이나脊髓液은本劑服用과同時에淨化가되며頭腦明快하고各臟器도 自然히强化가된다

腦梅毒만이

아니라모든梅毒性의疾患 假令 皮膚病이나 머드롬 부름頑固하로 하로나아가며 體毒濟毒痛疾痛神經痛류마치스動脈硬化其他遺傳梅毒等에 服用하야서 베루쓰獨得한 效果를 認定할수잇스며 潛伏性梅毒에는 頭痛便秘의苦痛을거진 一定한것가리따르나、이것도本劑의服用으로서 氣分조케解消할수잇스며 누구든지 永年의病苦에서 버서날수잇고 참으로健康을回復식힐수잇는것이다

體驗을말함

梅毒性의頭痛便秘도 다나어서愉快한生活

長野縣飯山町 渡瀨初雄

啓 貴店益益隆昌하심을 慶賀하옵니다 資藥 베루쓰丸의 德澤인가하며 깁히 感謝하야마지안나이다

拜 小生은 先春以來梅毒으로因하야 頭痛이 끈히지안코 肩脾痛 또는 부름으로 苦生하야 여러가지 手當을 하엿섯스나 낫지는안코하여 그대로 내버려 두엇섯나이다

그 랫든바 先般來貴店에서 發賣하시는베루쓰丸을 服用하엿든바 效果가 顯著하여 第一에 頭痛이업서저서 것든하며 게다가 永年을두고 便秘가 나든것도 업서젓고 實로 氣分조케便通을 보게되엿스며 어찌도 기뿐지 모르겟나이다 갓흘 皮膚에 나타나는 부름도 이즘에는 아조 업서젓스며 이것亦是 痛快합니다

이 제까지 나는 여러가지로 手當은 하엿스나 베루쓰丸만큼 速한 效果를 볼수업섯스며 압흐로도 親知들에게도 期於코推奬을 하려고합니다 말삼드린바와가티 全혀 全治된 狀態에잇스며 더욱이 今後에도 豫防上 繼續服用하려하고저 하오니

十 圓瓶 一個만 大至急 送藥하여주시서오 藥價는 爲替로 同封하엿사오니 查收하여주시고 實은 前般에도 어떤 知人에게서 顏色이 조와지고 元氣가도 두어젓다고하야 實로 기뿌기限量이 업나이다 이것도 오로지

梅毒과 體毒 便秘와부름에

베루쓰丸

梅毒、體毒、淋毒、橫痃、軟性下疳、遺傳梅毒、脊髓癆、腦梅毒、痛風、帶下、疥瘡、皮膚病、梅毒性류마치스、瘰癧、動脈硬化症、梅毒性便秘等總히梅毒性疾患에良效잇슴

藥價 六日分一圓、十二日分(半)二圓、二十日分三圓 三十五日分五圓、七十五日分十圓、百六十日分二十圓 二百六十日分(德用)三十圓 送料四十二錢、代引十五錢增

東京市日本橋區濱町三丁目四十番地

發賣元 鈴木日本製藥社 社主 鈴木清二

振替東京一〇五番 電話浪花八〇番九〇番

代理店 京城 木村、新井 釜山 大黑、藤田

演藝時評 (一)

小說・劇・映畫

夢駒

劇과映畫! 어두개의藝術形態는 서로共通된 무엇이잇고 가장가까워질수잇는듯하면서도 그實相은 相容할수업는 要素를가지고잇는것이다 劇은어디까지라도 劇이엿스며 映畫는 어디까지라도 映畫일수박게업다

요사히 우리가 對할수잇는 여러가지 映畫가운데는 劇의 古典가운데서 取材한것이만코 더욱이 劇을映畫化시킨것을볼 수잇다 이때까지의 그代表的인것으로는 라인할트의『여름밤의꿈』일것이다 이것은 쉑쓰피어의原作劇으로서 쉑쓰피어劇을 完全히演出할수잇는 사람으로 지금全世界에서 認定밧고잇는 라인할트로서도 이作品은 失敗하엿던것이다 그런데 쉑쓰피어의 大作을 映畫化시킨다는것은 그本質的인危險이 多分히 잇스며 前者라인할트의 失敗에 비추어 웬만한사람이 손대이기를 무서워함에도 不拘하고 여기메트로골드윙社가 『로미오와듀리에트』를映畫化시켯다

前者『여름밤의꿈』의失敗는쉑쓰피어의境遇에 詩的인純正演劇藝術이 根本的으로 映畫와 相容할수업는要素도 要素려니와 藝術的想像力이缺如된 아메리카의演技者로서 敢히이러한大作에 손을대인것이 잘못이라고할수잇스나 그러타하야 演技가能한歐洲의그사람들로도 容易할수는업는것이다 그러한것을 米國의가장怜悧한 製作者 메트로의 살바ー그가손을대엿다는것은 더욱이 메社의 社運으로보아 이大作의 失敗는 메社運命을 餘地업시 만들것을 알면서 손을대엿다는 것은 놀라운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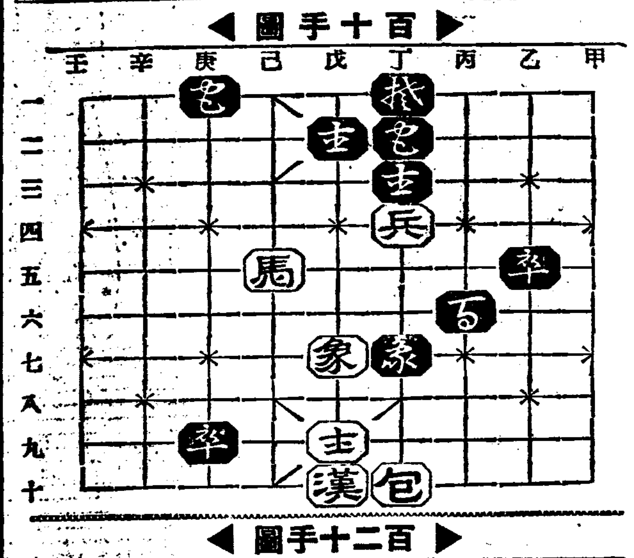
이映畫가 아즉이땅에는 輸入되지 안헛스니 成功이냐失敗냐는 斷言할수업스나 크게 注目할만한事實이다。 그런데 이와마찬가지로 有名한골키ー의『地下室』이란劇이 지금佛蘭西에서 映畫化 되엿는데 이것은 昨年度 그나라의映畫賞을탄 作品이라 成功하엿슬것이라고 생각한다 이劇은 元來舞臺의 變化가업는 것으로 有名한데 이것을어떠케映畫化시켯는지는모르나 困難은차라리『로미오와쥬리에트』보다더 만헛슬것이다。 이와가치朝鮮에잇서서도 近來에 小說의映畫化가 盛行되을보는데 아즉까지의 現狀으로보아서는 하나도成功한것이업섯다고 생각한다。

이原因으로는 元來 朝鮮의映畫가 傳統이업는것과 製作者自身이 文學的教養의不備로말미아마한까지의 文學作品을가지면 그것을 自己의 藝術로 消化한다음에 自己獨特한 手法으로進行시켜야 할것을 너무原作에 忠實하야이것에의 追從을是事삼는데 失敗의原因이 엿지나안흘가한다。取捨의貴로 대담한試鍊을 通하고 映畫를眼中에 너흔다음 原作을 考慮하여야할것이다 그런데 이것을그냥追從해서 만든結果가 아름답지못함으로서 그失敗의究明을 하기前에 文學作品의映畫化에 懷疑를가지게되는것이다 勿論 오리지넬 씨나리오를 잘쓸만한——다시말하면 現下文壇水準에 칠신 뛰여날 씨나리오라이터가 나온다면別問題거니와 아즉까지의 오리지넬 씨나리오로보아서는 文學作品의 映畫化보담 그水準이더낫고 失敗가큰데는하는수업는것이다。技術이란 어느程度의틀(型)을가지는것이다 또 ー키라는 技術의發展이어느程度로 普及되엿다음엔 映畫의技術여란 映畫의內容을넘어설수는 업슬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原作과脚色ー그것이 主要視되지안흐면안될것이다 다음에올問題는 조흔原作을 가지고 어떠케그것을映畫的인 要素로 옴기여노흐며 映畫로서의 成功을가질것인가하는데 重點이노혀잇슬것이다。(귀트는 로미오와 듀리에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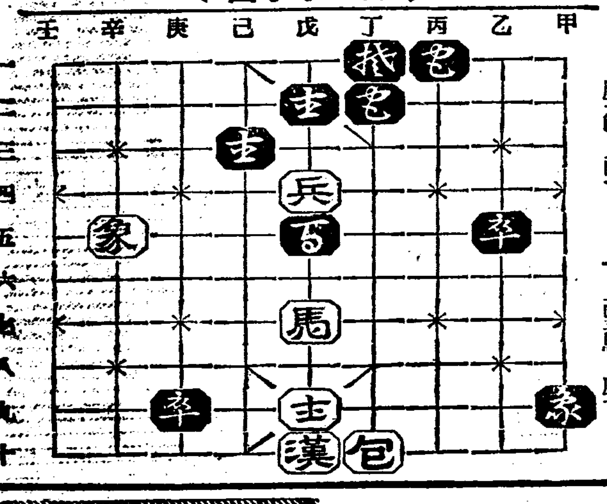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二十)

漢 李在鳳 楚先手 全于石

◀百十手圖▶



◀百二十手圖▶



丁三—戊三 戊九十—丁九 丁七—甲九 丁九十—戊九 庚一—丙一
戊七象—辛五 戊三—己三 丁四兵—戊四 丙六—戊五 己五馬—戊七

라디오

二十九日(土曜)

◇午後六時 童謠 一、齊唱 적은모래 二、齊唱 엄마일흔까마귀 三、獨唱 꼿 四、齊唱 시계방 五、齊唱 아침바다 六、獨唱 귀뚱 七、獨唱 고향생각 八、齊唱 조각배꼿방석 九、齊唱 달밤에도끼님 京城忠信學院兒童 피아노伴奏 金龍燮

◇同六時(東) 近世日本의英傑(五)東鄕平八郞(一)텍스트二七頁(第一放送)東京放送童話研究會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初等國語講座 高橋平次郞

▲同七時三〇分 記念講演 金融組合二十週年을마즈며 中樞院參議 韓圭復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楚漢歌 二、唱劇調 沈淸歌中水宮드러가는데 金昌龍 鼓手 丁元燮

◇同八時三〇分 一、노들江邊 二、도라지타령 三、密陽아리랑 四、興打鈴 五、靑春歌 六、방아타령 玄山紅 細笛 姜鶴洙 短簫 崔壽成

◇同九時 音律『靈山會相』 朝鮮正樂傳習所員

第一放送

◇同六時(東) 近世日本의英傑

◇同六時二五分(東) 講演

◇同七時三〇分(福) 講演

◇同八時(東) 라디오小說

◇同八時三五(東) 講談

◇同九時(東) 音樂地理

三十日(日曜)

◇午後一時 野球試合實況(國語)(京城)—龍山球場으로부터中繼— 京城實業野球聯盟春季리ー그戰(但雨天이면▲를中繼)

▲同〇時五〇分 라디오드라마(平壤)

▲同一時二〇分 레코ー드音樂(平壤)

◇同六時 偉人이야기『東鄕元帥』 京城女子師範 沈宜麟

◇同六時(東) 近世日本の英傑(五) 東鄕平八郞(二)テキスト二七頁(第一放送) 東京放送童話研究會

◇同六時二五分 佛敎의感應과堅實한社會 金默熙

◇同七時三〇分 經濟解說 金貨上價引上 朝鮮日報社 徐椿

◇同八時 一、楚漢歌 二、夢金浦打鈴 三、山念佛 四、寧邊歌 五、朴淵瀑布 六、興打鈴 金玉仙 金永根

◇同八時二五分 大衆 慶天歌 吳太石 丁南希 金世俊 姜南鳳 金鼎鶴 成美香 金緣珠

◇同八時五〇分 라디오小說『新生의길』 洪映日

◇同一〇時 朝滿交換放送(滿洲로부터)—哈爾賓—(京城、平壤) 滿洲新歌曲 一、哈爾濱之夜 二、黑水白山 三、覓求凰 四、空谷蘭 五、鳳陽花鼓 六、燕燕歌 七、舞伴之歌 八、特別快車 九、桃花江 十、搖籃曲 朱雲英 白鄒華 陳鳳蘭 伴奏 哈爾濱新滿樂團 指揮 葉桂芳

第一放送

◇午後〇時五〇分(東) 野球

◇同六時(東) 童話

◇同七時三〇分(東) 日曜演藝

◇同八時(東) 라디오콘서ー트

◇同八時三〇分(大) 歌謠

◇同八時三〇分(東) 라디오小說

◇同一〇時 朝滿交換

卅一日(月曜)

◇午後零時五分 (東)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篠原昌雄

◇同一時一五分 趣味講演 눈물이야기 醫學博士 申聖雨

◇同六時 兒童과先生의時間 一、이야기 二、朗讀 汽車의發達(讀本卷九第七課) 京城女子師範附屬普通學校 一年生 五年生

◇同六時 (大)連續童話劇 海の子供たち (五)テキスト六四頁(第一放送) BKコドモ會

◇同六時二五分 (東) 英語講座(三의一) 澤村寅二郞

◇同七時三〇分 常識講座 電氣化學工業의近狀 京城高工 安東赫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江上에둥둥 二、唱劇調 赤壁歌 申弄玉 鼓手 池龍九

◇同八時三〇分 빠이올린獨奏 一、소나티네 D長調 第一番 슈ー베르트作曲 第一樂章알레그르 몰토 第二樂章 안단테 第三樂章 알레그로、삐빠ー체作曲 二、아라비아의노래(림스키、코르사코프作曲 크라이슬러編曲)…三、幻想曲…金世炯作曲

◇同九時 古談『모르는四寸누의』 李雲林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東) 管絃樂

◇同六時(大) 童話

◇同六時一五分(城) 修養講座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同八時(各局) 俚謠

◇同八時三五分 漫談

濃くも淡くも自由につくモダン女性
好みにピッタリ合ふ調製パウダー
マスター粉白粉 (마스타 粉白粉)

산듯하고爽快! 化粧下와! 榮養에도——

旅行記 京都에서 水の江瀧子

京都에서名古屋으로今年은東京의櫻花時를보기도前에新綠을이루고말엇나이다 陽春에旅行이란어찌면이다지도조흘까요! 그러나舞臺를떠나지못하는 身勢이라 閑暇로히 散策한번못해보앗나이다 膳物로드릴寫眞은 만히잇기는하지만 化粧을 알맛게하기어려운季節이라………만은 나에게는 마스타ー바니싱과 明朗色마스타ー粉白粉이잇스니까 이難點은 그래도 安心입니다 이것은平安神宮의 神苑에서박힌傑作中의 하나입니다

マスターバニシングクリーム (마스타ー바니싱크림)

ヒゲ剃り後にも大好評……お德用大壜あり

洛江의砂防賦役(十二年度) 出役延人七十二萬

慶北道內의十六個郡分으로 換算金額三十六萬圓

【大邱】과도한 민간의부역으로 일반농세농민이 지당하기가어려워 이곳저곳에서 불평과 불만이 만흔 요지음에 십개년계속 사업인 락동강류역사방사업（洛東江流域砂防事業）에대한 소화십이년도의 부역부가 도사정된바 에의하면 총부역연인수가、칠십이만 구천명으로 환산금（換算金）은 삼십륙만 사천오백원에달하고잇다 그리고 군별로보면 다음과갓다

郡名	賦役人數	換算額
達城郡	二四、〇〇〇人	一二、〇〇〇圓
義城郡	四六、六〇〇	二三、三〇〇
安東郡	三六、四〇〇	一八、二〇〇
永川郡	三五、四〇〇	一七、七〇〇
慶山郡	一四、五〇〇	七、二五〇
淸道郡	一四、一〇〇	七、〇五〇
高靈郡	三三、六〇〇	一六、八〇〇
星州郡	五四、〇〇〇	二七、〇〇〇
漆谷郡	四一、二〇〇	二〇、六〇〇
金泉郡	九六、四〇〇	四八、二〇〇
善山郡	六三、〇〇〇	三一、五〇〇
尙州郡	一〇八、四〇〇	五四、二〇〇
聞慶郡	三一、六〇〇	一五、八〇〇
醴泉郡	六六、六〇〇	三三、三〇〇
榮州郡	五四、七〇〇	二七、三五〇
奉化郡	三三、五〇〇	一六、七五〇
計	七二九、〇〇〇	三六四、五〇〇

이라한다

住民生活策을爲해 鹽工場設置邁進

遊園地는他處도잇다

【西湖津】루보=작도해수욕장문제로 일본는유원지 해수욕장을만들자는 주장과 유원지보담오천주민이 살고잇는 어향의 산업기관을 확충시켜 어민의활로를구하여주는동시 주민노동자의 취직책을 구하여 생활안정을시키는것이 서호의 급선무라는주장이 대립되여 쌍방의 태도가 강경하든바 근일서호면장 리지영(面長李智永)씨는 여러가지로 생각한결과 해수욕장은 그장소가아니라도 어미하든장소나 혹은귀경대(龜鏡臺)부근이라도 훌륭한유원지를 만들수잇는 것임을절실히 늣기고 산업기을 확충시켜 지방을 흥성케하며 주민생활책을 구하겟다는 의미에서사회여론이 잇는말는 주장대로정어리 공장을 십여개소이상을안치케하랴고 강경한태도로주장을하다고한다 설치비사만오천원중 이만원으로도비로 지출하고 남어지이만오천원은 민간으로부터 기부를밧기로되엿다한다

市民大運動會와 全朝鮮脚戲戰

長淵支局後援

【長淵】천중가절단오를 리용하여 장연읍내에서는 장연시민대운동회급전조선 각희 추천대회를 장연상민주최 본보장연지국후원하에 개최하기로되며 주최측에서는 대분망중이라는데 래륙월십삼일에는 대운동회 십사오량일간은 각희 추천대회라는바 각희대회의 상금은 일등에 백원 이등에오십원 삼등에삼십원 기타부상도 다수잇슬터로서 벌서부터 운동회연습이 맹렬하며 각희대회의 성황을 예기하는바 려사들의 다수오긔를바란다

教育事業爲하야 六百巨金喜捨

臨終時遺言으로

【殷栗】문화기관과사회시설이빈약한은률교육사업에 병마와싸우다못해림종의최후일각을 악기어가며 금륙백원이란 거액을 교육사업을 비롯하야 사회사업에 기부하라는 엄숙한 유언을남기고간 특지가잇다 그로 은률군 은률면 란보리 륙백십일번지 김진모(金鎭模)(六三)씨는 노환으로 신음하든중 지난사월이십이일 하오팔시 드듸어 세상을 떠나게되엿다 림종시 씨의장남인 김형곤(金炯坤)에게 다음과가티 긔부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것이라한다

一、殷栗私立光宣學校 一百圓
一、殷栗邑耶蘇敎會 一百圓
一、殷栗公普校 一百圓
一、殷栗面冷泉里耶蘇敎會 一百圓
一、殷栗面冷泉里夜學會 一百圓
一、殷栗面私立光宣幼稚園 一百圓

鎭南浦簡易校 六月一日開校

【鎭南浦】진남포부초등교육십개년확장계획중의 하나인 간이학교(簡易學校)는 풍정보교（楓井普校）에 병설키로되여 六月一日에 개교한다는바 입학생연령은 만팔세로 십사세까지로하야 남자일학급과 녀자일학급을 모집한다고한다

日鐵製鍊所에서 人夫供給制改革

【鎭南浦】삼천여명의종업원을가진 진남포의대공장 일본광제련소(日本製鍊所)에서는 물가고등과 가치 전차로동자임금을 일제히 인상하엿거니와 로동자들의 피와땀을 빨라먹는 중간착취제도인 인부공급제도를개혁하고 과동시에 수천종업원의생활향상을위하여 만반설비를 도하고잇다는바 위선일천오백원예산으로 활동사진기를구입하고 일만이천원예산으로 공동욕탕(共同浴湯)을 신설하는등 로동자대우개선에 선봉이되엿다고한다 점차공업도시화하고잇는 진남포로동계의 명랑한소식이라고한다

普通、鳳翔兩江의 改修着工이在邇

鳳岫、岐陽兩工塲벌서着工

【平壤】평안남도에서는 금년도부터 오개년계속사업으로 보통강(普通江)외다섯중소하천을 개수키로되여 그중에서 공비사백십만원의 보통강과 공비륙십팔만원의 봉상강(鳳翔江)은 평남치수사무소에서 직영사업으로 단행하기로되여 방금 설계중이며 이보다압서 공사의중심이될 보통강의 봉수공장(鳳岫工塲)봉상강의 기양공장(岐陽工塲)을 구천구백원으로 신축하기로되여 얼마전에 착공햇는데 칠월초순경에는 준공될터이므로 이공장이 완성되는대로 본격적개수공사에 착수할터이라한다

面所移轉問題로 住民撤市等騷動

區長消組員도辭表提出怠業 暗雲低迷의慈山市

【順川】평남 순천군자산면 사무소(慈山面事務所)이전문제로전시민대표가 수차로 군과도당국에 반대진정을 하엿다함은 기보한바와갓거니와 시일이 지날사록자못험악화하여 이제야 삽백시민은 철시를 하는등 구장 (區長)과 소방조원 (消防組員)들이 사표를 제출하고태업을하는등의 사태에이르러 자산시는 문자그대로 혼란상태에 빠저잇다한다

張鳥人歡迎會 新義州서盛況

【新義州】본보신의주지국주최의 장덕창(張德昌)씨 환영회는지난 이십칠일오후일곱시부터 부내로송정(老松町)신향원(新香園)에서 개최하엿는데 신의주는 그의고향인만큼 각방면의인사가 우중임을불구하고 열심으로 참가하야 결국 출석자칠십여명의 다수에달하야 근래에보기드문 대성황을일우엇다 그리하야 모든흥금을헤치고 간격이업시서로즐기다가밤열시가지나서야산회하얏다

載寧脚戲、鞦韆大會

【載寧】록음이 무르녹은 초하의하로를 질기기위하야 오월단오일이면매년 씨름、탈춤、추천등을년중행사로 개최하야 오든바금년에도 단오일인 오는륙월십삼일부터 삼일간 본보재녕지국후원으로 씨름과 탈춤 추천대회를 재녕운동장에서 열기로되엿다 한다

平北水產試驗塲 登串浦로決定

設置費四萬餘圓

【新義州】룡천군룡암포(龍岩浦)에잇는 수산학교(水產學校)를폐지하고 그대신으로 설치하려든평북수산시험장(平北水產試驗場)은 수산교의 존치로 말미아마그동안도당국에서 설치후보지를선정하든바 철산군등곶포（鐵山郡登串浦）에 설치하기로되엿는데

普校生三名이 登校後行方不明

誘引魔의所爲? 警察嚴探

【大田】보통학교생도 세명이손에손을마조잡고 행방을감추엇다 론산군벌곡면사정리 （論山郡伐谷面沙亭里） 리정하의장남 리은섭(李殷燮)(一三)은 한동리에사는권경승(權景昇)(一二) 우상철 (禹相喆)(一三)등과함께 지난이십오일학교에간다고나간채 어느곳으로행방을감추어버렷다하야 그부형들은 지난이십팔일 대전서에와서 차저달라고애원하얏다

住民三千餘名에 醫業者는單一人

貧弱한黃海道醫療機關

【海州】한심한 황해도의 의료기관(醫療機關)의분포상황——황해도위생과(衛生課)에서 집게한 작년말현재 황해도내 의료기관의분포상항을보면 의사(醫師)가일본내지인 삼십칠명 조선인일백삼십사명 외국인한명 그합계이백칠십이명을 필두로하야 조선인 의생(醫生)일백팔십칠명 한지의업자(限地醫業者)일본내지인두명 조선인 이십사명 그합계이십칠명으로 도내의 의업관계자는 좋든곳 사백팔십칠명밧게안되는터이다 이것을 황해도민 일백칠십삼만여인구에 비례해보면 도민삼천삼백여명에 의업자 한사람의비례로서 의료기관의 불비를 설명하고잇스며 더욱이 해주(海州)나 봉산(鳳山)등지의도시에는의사(醫師)만도 이、삼십명식 배치되여잇슴에반하야 곡산(谷山)신계(新溪)등지의산간지대에는 두명내지 다섯명밧게배치 되여잇지아니하여 도시에만 편중된듯 감을주다 그리고 의사 의생 한지의업자들의 분포상항을 군별로보면 다음과갓다

郡名	醫師	醫生	限地醫
海州	三三	一九	五
延白	一三	一四	五
金川	一二	六	
平山	七	一三	一
新溪	二	七	
瓮津	一一	六	三
長淵	五	一二	三
松禾	五一	一二	三
殷栗	六	一一	一
安岳	一一	一〇	
信川	七	一二	一
載寧	一四	一一	二
黃州	一〇	一四	二
鳳山	一三	一五	二
瑞興	七	五	
遂安	三	一〇	
谷山	五	九	二
計	一七二	一八八	二七

川北公普增級費로 또三千五百圓喜捨

廣川韓雲女史의壯擧

【廣川】충남홍성군광천면광천리 광천공보학급증설비 삼천원을비롯하야 공공단체사업에 만여원을헤척한 충남홍성광천면광천리에거주하는 한운녀사(韓雲女史)의미거사실에대하야는 기보한바어니와 그는금년칠십일세의 로령으로 얼마남지아니한 여세를가지고 또다시 지난오월이십륙일에 보녕군천북면 (保寧郡川北面)공보학급증설비로 삼천오백원을 출연한사실이잇다 천북면은보녕군청소재지인 대천(大川)으로부터 칠리광천(廣川)으로부터 오리나떠러저잇는 해변벽지로서지리관계상 문화시설이 뒤떠러진벽면으로 근자산금열의광산경기로 겨우그날그날 호구지책을해나가던중 소화십년도에겨우당국의일면일교제의혜택을입어이학급사년제 일백오십명의생도를겨우수용하는중 빈약한면민은 금년에야 겨우사학급륙년제의 기성회를 조직하고 백방으로 활동하엿스나 금후오년에야 겨우실현될가말가한 현상이여서 동면민은 교육기근에 초조불안하든바 이현상을알게된 동녀사는 과거사십년동안 거주하든 동면민의 가궁한정상의 불안을꺼주기위한마음의 지성을표한것으로 일반은 동녀사의 장거에대하야 층송이 자자하다한다

◇寫眞…同韓雲女史

地方人事

▲李泰煥氏(本報淳昌支局長)今月二十七日 淳昌郡自宅에서遭外艱

▲尹世衛氏(慶北道會議員)當選人事次大邱支局來訪

▲大井利三郎氏(同上)

長篇小說

恭愍王【3】

李光洙 作
金熊超 畵

이제현은 이욱히 왕후의 화상을 바라보다가、

『참으로 신필이시오。공주마마께옵서 금시에 무슨 분부가 게실듯하오。필치이라하올지 살아게시다 하올지』

하는 이 말 속에는 아첨도 업마 잇지마는 사실 이제현은 이 그림을 썩 잘 그린것으로 생각하엿다。

전부터 왕은 그림을 그려왓으시고는 반다시 이제현을 불러서 그 평을 둘고 그의 시찬을 구하는것을 질겨하엿다。천산대렵도(天山大獵圖)도 그러하엿다。경룡에 잇어서 왕은 이제현을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 아니하지마는 그의 문장과 예술적 견식에 대해서는 당대에 가장 놉흔줄로 허하신것이다。

『그림이 잘 되엇기로니 무얼하오? 한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오지를 못하나。아직도 이러케 가만히 앉어으면 공주가 어디서 어리로 오는 발자욱 소리가 나는것만 갈고 눈을 감으면 공주가 겻에와서 서는것 갈것만는 떠보면 허공뿐이로구려』

공주란 왕후를 가리친말이다

『어찌 아니 그러하시오리까。마는 상감마마는 한 나라의임금이시오。조종의 대업을 위하시와 억조창생을 위하시와 정사를 힘쓰심이 옳은줄 아뢰오 술픔을오래 품으시면 성체를상하심이 크실가 저퍼하오。인제 졸곡도 지낫사오니 새로 국모를 간택하시옵고——』

『옹。어찌 의재矣아 그러케인정없는 말을 하오? 임금은사람이 아니오?』

『그러하오나 오래 정사를 페하시면 나라ㅅ일은 어찌 되옵니까。지금 안에는 도처에 긔근과 질병이 엇사옵고 밖에서는 왜구와 홍두적의 침범이끊일사이가없사와 민정이 심히오오하옵고 문신과 무신은 알업을 일삼아 진실로 나라를 근심하는자는 손꼽아 혜이기에도 모자라오족 사직이 위태하기누란과 갈든가 하오』

『내들 나라ㅅ일을 노상 잇것소? 마는죽위하지 심사변 동안 내힘으로 할수잇는일은 다 해보지않앗소。그러나 누구를믿고 누구에게 나라일을 맡기단 말이오? 제도를 고쳐보고 사람을 갈아보기를 무릇 세번그래도 도로 그러이옥구려。국운이 쇠하고 왕긔가 소진한 모양이오。웬 그리 소인만 많고 군자를 찻기가 어렵소?』

『정몽주、최형、이성계가 다 충의지사인가하오。』

『정몽주는 도학군자일은 놉다고들 하오마는 경룡에 보잘것이 없고 최형과 이성계는 뛰어난 무장이나 역시 경륜이 어떠할지。이성계、이성계。이성계는대하면 그 눈이 무서워。범상한 인물이 아니나 고려에 충신이 될가』

『상감마마。어찌 그런 말슴을 하시옵니까。이성계는 백전백승——』

『그러치。백전백승이지。여진과 싸와도 이기고 왜구와 싸와도 이기고。도모지 부귀에는 뜻이 없은듯이、서울에는 오래머물지도아니하고。그러나 그 속에는 범상치아니한 욕심이 잇는것갈단 말요』

『천만에、이성계는 그런 딴뜻을 품을 사람은 아닌줄 아뢰오。조일신(趙日新)이나 최유(崔濡)류와 같이——』

『딴뜻을 품기로 죄될것 엇소? 정말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사람이라면 나는그에게 임금의 자리를 내어주라오。그러치。임금의 자리란 임금 될만한 사람의자리오 한 사람의것이 아니어든』

왕은 괴로운듯이 칭음하신다 늙은 이제현은 아릴일바를 몰라서 다만 고개를 숙우리고 잇슬뿐이다。그 주름많은 붉은얼굴에는 눈물이 흐른다。그는 충선왕적부터 섬겨오는 노신이어니와 이 임금처럼 총명하고 인자하신이는 처음이엇다。그도 이 임금은 나라를 바로잡을가하고 기대도 하고 도우려고도 하엿지마는 재목이 썩어 읎어지는 큰 집을 외나무로 버틸수가 없는것과 같앗다。임금이 잘하랴시는 일은 간악한 신하들로 말미암아 모조리 반대결과를 이르게되엇다。이런 모든 일을 몸소 보아온 이제현은 남달리 왕의 심사를 동정할수잇엇다。

술퍼하는 임금과 늙은 신하는 한참동안이나 말이 없엇다。고요한 전정에서는 제비소리와 꾀꼬리소리가 들려왓다。

藥效特 症下帶白赤 疾淋

第一効藥

깅노고지안

適應症

急性三日慢性七日이면 이以上服藥不必要

藥價 一〇〇錠入 五圓也

京城府鍾路六丁目
國際新藥研究所
振替京城二一七一番
電話光化門一六九八番

文學士 趙潤濟先生著

朝鮮詩歌史綱

菊版 本文四五三頁索引附
裝幀 總크로-스 上製表本
定價 四圓 送料三十錢

本書는 著者가 多年朝鮮文學硏究의 蘊蓄을傾倒한快著다。詩歌는 可히 朝鮮文學上의꼿으로 그淵源이멀뿐아니라 또 그其에잇서서 各時代를 通하야 大部分을 點有하야 實로 朝鮮文學의硏究는이詩歌의硏究에 期待할일이 만타

그런대 過去에는 비록 그硏究가잇섯다하여도 아직部分問題를넘지못하엿더니 本書는이點에 遺憾업시 縱으로橫으로 詩歌의 全野에洗入하야 前人未踏의 境域을 開拓하고 複雜多樣한가운대에 이를時代的으로 體系세워 이方面의 新生面을 展開하얏다 朝鮮文學의 硏究者는勿論一般文學愛好者에 絶好의著書일뿐아니라또 當來의 文藝에興味를가진이에게도 多大한 暗示를줄것이다

內容目次一部

緖言
第一章 朝鮮詩歌의學生時代
一、時代의槪觀 二、朝鮮民族과 歌謠 三、宗敎와 詩歌 四、先率歌와詞腦歌
第二章 鄕歌時代
一、時代의槪觀 二、鄕歌의意義 三、三國遺事의鄕歌 四、均如傳의鄕歌 五、三國時代의歌謠 六、三國의樂制
第三章 詩歌의漢譯時代
一、時代의槪觀 二、鄕歌의片影 三、寘勹과鄭瓜亭曲 四、景幾體歌의成立 五、忠烈王朝의歌壇 六、時調의發生 七、漢譯歌 八、高麗의俗樂
第四章 舊樂淸算時代
一、時代의槪觀 二、創業의頌詠 三、龍飛御天歌 四、月印千江之曲과佛敎歌頌 五、高麗樂歌의整理 六、舊樂辭察과民 歌蒐集 七、樂學軌範의編修 八、李朝初期의時調界 九、歌辭와丁不憂軒 十、燕山朝의妓樂
(以下省略)

發賣所 京城府齊洞町一一二番地 東光堂書店 電話光化門三七〇番 振替京城一六一二〇番

新築家屋賣買開始

重要階級人士의文化住宅이大部分櫻ケ丘를占領함을따라交通道路下水溝等衛生施設이充分한模範住宅地입니다
▲純朝鮮式瓦家四間半로부터十餘間까지有하으며價格은一間一百五十五圓式京城府櫻ケ丘獎忠壇뻐스線終點問議處京城鍾路永保빌딩三階

朝鮮建築社 電話光化門一三四九

男女 淋疾 蔘茸五淋錠

近二十日分 價 三圓 二十七日分 三圓

人蔘鹿茸强力殺菌劑 高等洋藥 說明書進呈
咸興府大和町三 朝鮮靈藥硏究所

流行歌 배ㅅ노래

漢城譜

포리도-ㄹ 레코-드

引換券 三仙膏
發賣五十周年紀念으로 此切取券에 五枚 送付하시는 분에는 三仙膏 一包式進呈

鄭檢書創製秘傳 治腫靈藥

三仙膏 의慧星的 出現！

腫治 然斷 膏藥界의 覇王

連珠,滿身瘡,走馬痰,背腫,發際,腦後腫,乳腫,關節炎,僂痲質斯,疔腫,痔疾,痰腫,濕腫,火傷,創傷,切傷,落傷,打撲傷,擦傷,等々……에神効靈驗!

定價
五錢…(試用包)
拾錢
貳拾錢
參拾錢
五拾錢…(德用包)
壹圓…(常備用大德用包)

製造本舖 共生藥業株式會社 京城鍾路 電話光{長2547 1745 振替京城22002

全國各有名藥房及百貨店에서販賣

銀粒 十寶丹

拔群●●●王座 (全鮮賣藥店、藥店 煙草店에販賣함)

恒常優秀한 十寶丹은 最廉의價格으로 提供하옵고저、十年間辛辛當苦의努力한 結晶은完全한設備와熟達한技術을擁하고

一、消化、氣付
一、眩暈、吐瀉
一、船車酔、胃痛의

活動에絶佳의品質을保持하고最高率의効果를發揮하며 이類似品의追隨를不許함

◎特約店大募集案內書進呈◎
◎見本請求는郵券十錢要함◎

定價 케-스付 300粒入—10錢 1000粒入—30錢

京城櫻井町 十寶丹京城營業所 電本五七六三・振京一二五九七 本舖 奈良

"商人의營業蠶食"
農會、産組、金融組合、殖産契等 諸機關事業緩和要望
朝鮮商議에提案

朝鮮商議第六回定期總會는 六月中旬 開催할터인데 各會議所의 提案이 逐次發表되는 그外 第一次分은 如左하다

▲第一號=日本內地 朝鮮의 重要産業統制法擴大强化에 對하야서는 朝鮮總督府는 아즉 搖籃期에잇는 朝鮮의 新興産業現況에 鑑하야 愼重히 對處키를 要望함(釜山)

理由=叢者 政府는 六十九議會에서 重要産業統制法을 擴大하야 外地에도 適用케하고저 改正하고 이미 本法이 今年三月十日以降 朝鮮에도 施行되엇는바 政府는 更히 最近에 至하야 內外地의 産業經濟調整連絡을 圖하고 其强固한 連帶를 形成케할 目的下에 새로이 中央經濟會議를 設하야 朝鮮을 對象으로한 重要産業의 統制强化를 具現하고저하는 企圖가잇다고 傳한다 政府가 國策에 則하야 如上하야서는 全商的으로 反對할바 아니나 그러타고 統制法의 發動에 際하야 日本內地産業을 保護키爲하야 外地의 産業이 그 犧牲이 될念慮가 濃厚하며 또 朝鮮의 新興産業은 아즉 萌芽期에 屬하고 統制法實施對象이 될 素質이잇는것이 대단히 적을뿐아니라 朝鮮自體의 經濟가 아즉 傳統的 農本主義의 域을 未脫하야 그向上發展은 最近의 勃興에 係한 新興工業의 助長育成에 依하고 農工併進에 依한 朝鮮産業을 確立할 必須條件임에 鑑하야 最近政府가 企圖한다고 傳하는 重要産業統制强化에 對하야서는 朝鮮總督府는 愼重히 그對策을 講究하야 新興産業의 發達을 拘束함과 가튼 일이 업도록 善處키를 要望함

▲第二號=農會、産業組合、金融組合及殖産契等의 事業이 近年 顯著히 擴張發展됨에 伴하야 商人의 營業을 壓迫하고 商人을 自滅케함에 至할지도모르는 寒心한 狀態이다 그럼으로 總督府는 이에 對하야 善處키를 要望(元山)

理由=往年總督府는 農村、漁村救濟의 緊急을 認하고 中小商工業者救濟도 等閑에 付할수업슴을 認한것은 業者로서 感謝하는바이다 그리고 農漁村의 救濟는 그後 여러가지 施設로 實現되고 效果를 奏하야 每年機關强化를 圖하고 或은 新施設로 그振興에 寄與하는 現狀이다。最近日本內地에서는 業者多年의 要望一部가 容認되어 五千萬圓의 低利資金融通을 엇게된 모양이나 朝鮮에 잇어서는 아즉 何等救濟施設이 잇슴을 듯지못하얏슬뿐아니라 各地農會、産業組合、金融組合、殖産契等의 機關이 逐年擴張、强化됨에 伴하야 商人의 營業을 蠶食하고 그破滅에 導케하는 中이다 即 農家의 肥料、農具、叺、繩、海産物의 類는 말할것도 업고 石油、燐寸에 至하기까지 共同購入이 行하는 結果 商人의 營業을 蠶食하고 昨今 需要期에도 不拘코 實行困難인것은 그影響이다 從來 日本內地商業界는 生産者와 消費者의 中間搾取者라는 자미업는 觀念을 가진者도잇서 그래서 朝鮮에서도 一部에서 或은 이에共鳴하는것가터 생각되는 傾向이나 總督府는 業者商工業救濟가 必要함을 認한것은 不言이다 今回日本內地에서는 上記와가티 巨額의 融資로서 中小商工業者의 救濟에 當한다하니 朝鮮에서는 먼저 上記機關의 事業을 適當히 緩和하야 商人의 營業을 壓迫치 안키를 本旨로하고 農漁村과 共히 救濟의 實을 擧키를 希望함

▲第三號=都市金融組合의 貸付增額을 要望함(全州)

理由=最近經濟界의 膨脹에 伴하야 金融逼迫이 顯著한데 現行金融組合의 貸付金은 一口 千圓 信用一千圓에 極限되어잇스나 右는 昭和四年當時의 制度를 그대로 踏襲한것으로서 時代進展과 相伴치아니하고 信用取引을 擴張할수잇는대로 增額하야 그럼으로 講究키를 切望함

"金"安定問題登場
英帝國會議重視

【倫敦二十七日發同盟】英國政府側이 金塊市場에 積極的 運動을 行한結果 金에對한 確信은 漸次回復되는中이나 市場에서는 一方目下 開會中의 英帝國會議의 形勢에 關心을 集中하는 模樣이다 即英帝國會議에서는 近近經濟問題의 討議를 開始할터인데 이에關聯하야 各種臆測이 傳하며 特히 金價格의 安定에 關하야는 風說이 不絶하는 狀態이다 더욱 市場에서는 이問題는 目下 進行中의 英米互惠通商協定交涉과 密接한 聯絡을 갓고잇스며 또 金價格의 秩序잇는 安定確保의 方策을 講키爲하야는 金의 有力한 生産國으로서 蘇聯邦의 同意를 必要로한다는 見解를 내리고잇다 이點에 關하야 英帝國會議에 帝國을 爲하야 倫敦에 잇는 南阿聯邦藏相 뜨라스·크리스찬·하벵가氏는 記者의 質問에 對하야

「我等은 深甚한 關心을가지고 事態를 注視하는 中이다」

고 述하엿는데 氏도 이以上 더말할수업는것은 明白함으로 市場에서는 英帝國會議의 席上 金價格安定에 關하야 何等具體的 方策이 樹立될것이라고는 一般的으로 豫想되지 안호나 如何튼 不安으로말미아마 株式取引所를 爲始하야 各方面의 取引이 阻害되어 前途는 자못 注目된다

金買上價引上을 一委員이 强調
物價對策委員會에서

【東京電話同盟】金現送과 産金獎勵의 必要는 不卽不離의 關係에잇는데 二十八日의 臨時物價對策委員會에서 一委員으로부터 如左히 産金獎勵에 關한 積極意見이 잇서 注目되엇다 即一委員에 依하면

年初以來의 入超額은 顯著히 巨額에 達하고 金의 現送이 必要하다 그러나 그것은 新産金買上의 不足을 招來케됨으로 今回更히 金買上價를 引上하야 積極的으로 産金獎勵를 圖함이 目下急務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리하면 貧鑛處理도 採算的으로 可能케되는 一方 買上價의 引上에 依하야 過大利潤을 得할 産金業者에게 對하야서는 適當히 稅負擔을 過重할것이다

金買上價의 引上은 反面에 物價高를 刺戟하고 物價對策委員會의 目的에 背反하는 念慮가 업지 안코 그運用에는 愼重을 期할 必要가 잇는데 右는 産金政策과의 關聯에 잇서 一示唆를 與한것이라하야 注目된다한다

春繭品質良好

【沼津電話同盟】乾繭初取引에 供한 繭一千二百貫은 二十八日共同乾繭所에서 本乾에 附한 一方 荷口十二으로서 各八百匁式 引出하야다 사품은 靜岡繭絲檢定所에 보내고 同夜深更에 檢査를 終了하야 初取引은 二十九日午前十時 檢定成績은 檢査席에서 發表하얏다 初繭은 氣候關係와 삼플抽出方法의 變更으로 平均絲量十三匁七、八分이 豫想되엇스나 檢定結果는 如左히 豫想보다 良好하얏는데 全혀規則統一에 基한 品質良化에 依한것으로 收繭에 際하야 氣候不良으로 解舒가 幾分 不良한것은 遺憾이다

▲昭和十二年度春繭初乾繭取引檢定平均成績(沼津共同乾繭取引所)

生絲量率 乾繭	三六%九九
生繭	一四%○五
類節	三三、一九
選除繭率	○、八%
繭絲長	七七六米
落絲口回數	○、四四七回
準度	三、四三四
對一時間繰絲量	九一、一瓦

沼津四十二掛決定
昨年보다 一圓一一圓二十錢高

【沼津電話同盟】沼津市場의 春繭取引檢定은 四十二掛로 正式決定되엇는데 右四十二掛에 依하야 이것을 計算하면 乾繭十貫匁 百五十九圓三十二錢 生繭一貫匁 五圓九十錢一厘로되어 昨年의 初取引普通百四圓六十九錢貫 四圓九十四錢(三十四掛)에 比하야 一圓乃至一圓二十錢高인 計算이라한다

鴨綠江水電은 七月에會社創立
◇…野口朝窒社長談

鴨綠江水電會社는 株式配定等 書類의 大綱이 決定되엇스나 지 [illegible] 言할수업고 會社는 七月에 創立케되엿다 工事는 鐵道發電所工事를 進行하고잇는데 速히 着工치안흐면 用水 結氷으로 支障이 생긴다 旭베벨구의 西朝鮮進出等을 傳하나 나는 全然모른다 鴨綠江水電이 完成하면 事業이 勃興할것이다 大體人絹工場을 朝鮮에둠은 不適當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興南과가튼 곳은 土地 電氣 藥品 水等모든 條件이 具備하나 人絹工場을 세우지안흠은 女工難이 特히 北朝鮮地方에 甚한것과 空氣乾燥에 依한 空氣淨化難等의 重大支障이 잇는 때문이다 大日本紡이 清津에 人絹工場을 세우는데 이에는 朝鮮窒素로부터 曹達硫酸을 賣하고 잇지만 이런意味에서 人絹工場을 朝鮮에 設置함은 悲觀이다

週間大勢

○株式 前週末 東京市場의 多少硬化로 어떤 動意를 認定할수잇슬가한것도 一時的現象에 곳치고 政局不安과 金融逼迫狀態는 조금도 緩和되지아니한때에 다시 北中問題、南中排日問題等 不美한 事件이 連發하야 다시 警戒人氣가되고 米國의 株式商品도 底入모양을 보기는하나 依然 低迷狀態를 未免하고잇는것等으로해서 前途豫觀는 드듸어 困難하야 仕手는 傍觀을 그대로 繼續하고 따라 市勢도 거의 膠着不動의 保合을 續하는 中 人絹業界가 生産過剩과 輸出不振을 悲觀코 人絹株가 崩落하고 爲替管理說로 鐘新等紡績株의 反落을 誘致하게되어 다시 悲觀人氣가 濃厚한때에 突然 再昨夕刻에 鐘新의 拂込決定을 傳하고 昨朝以來 鐘新이 奔騰하고 이에 刺戟되어 諸株도 一齊堅調를 보이게되자 이것을 動機로 一高를 示할지는 모르나 하는 說도 나오게되엿스나 아무튼 昨今의 不透明한 環境으로보아서 그리크게 好轉될 條件도업스며 또한 一高가 잇다하드라도 再賣되는 順序에 잇다고보아 戾賣하야 다시 鈍化하게되엇는데 大體로 아직은 ㅋ리 興味잇는 場面은 보힐수업는 事情이라 當分 底固時代의 將歡인 小幅往來의 保合이 繼續되는 것이 아닌가한다。

○米 五月發米發表後에는 材料가업는데다가 價位가 依然相當한 高位에잇스므로 人氣의 擡頭가 여유롭지 못하엿스나 그比로는 市勢는 頑强하야 戾賣도 相當히 强하나 容易히 低價를 不許하는 光景이다。더욱이나 大阪서 當限五萬石受米條件付로 肩代가 成立되엿다고 傳하는 同時에 大阪當限은 結局 三十四圓十錢의 高價로 納會되고 말엇다。大阪의、當限大變渡升、浮動米를 一掃하엿다고 보면、當限落後의 實、地場의 買物이 잇서 當限新後에는 當先의 齊朝로 入百圓關門內外의 採合을 持續하고 잇서 다시 好轉될 順序가 아닌가하는것이 强氣의 觀測인데 今後 注目할것은 무엇보다 天候이며 그다음은 蓬萊米의 壓迫이 第一憂慮되는 問題일것이다。

○生絲 環境이 不透明한데다가 內外滿算의 軟弱을 보고 前途를 念慮하야 現物은 實態度가 軟化하기는 하엿스나 新繭의 透視하고 實追擊도 할수업거니와 그러타고 積極買할 材料다운 材料가업서 氣迷狀態로 保合을 繼續中이다。高價에는 實環賣가 잇고 低價에는 地方側의 逆保險賣、地場의 買物이 잇서 當限後에는 當先의 齊朝로 入百圓關門內外의 採合을 持續하고 잇다。

○綿絲 米綿이 一高一低의 保合이므로 市勢는 小幅往來로 終始하야 期待되엇든 當限戰도 平凡하게 끗막고말엇는데 한편으로는 爲替管理强化가 貿易管理에까지 이르지안흘가하는 念慮도 잇서 延長될모양이므로 이 强材料를 압두고 賣할수업다고해서 賣警戒되고잇스나 實勢는 依然不良하야 綿布의 輸出은 依然閑散하야 布中心의 在荷가 激增하고잇는 것을보고 熱心買할수업서 이곳에도 保合人氣가 濃厚하다。米綿도 天候가 唯一한 材料가 되고 當分間은 無材料의 小幅往來라할 것이다。

○人絹 오래동안 膠着保合을 하고잇든 人絹은 生産過剩과 輸出不振으로 悲觀人氣가 濃化하야 마츰내 下分岐로 八十圓臺割이되어 先限도 七十八圓臺로 滑下하엿는데、그러타고 目前에 이以外에 크게 悲觀할 材料가 잇다는것도 아니나 決算期를 압두고 會社側이 低價를 放한 痕跡도 잇서는것을 보면 實勢가 人氣의 比는 아니라할수잇고 또팔푸도 供給難이 云云되는 때라 買易管理는 될는지 모르나 現實에 팔푸難이 크게 非觀되는 것은 아닌 以上、크게 非觀할것까지는 업슬것이다。다만人氣가 相當히 濃化한것은 事實이니 當分은 戾賣로 不勢를 빚을 것이다。

朝鮮共同油脂創立

朝鮮共同油脂株式會社의 創立總會는 廿九日 午前十一時 府民館에서 開催하고 會社創立에 關한 一切事項을 附議하고 重役選擧를 行한바 常務重役은 如左하다

▲取締役社長 大島良士 ▲常務取締役 平山季明 三好孝

新會社의 內容은 資本金五百萬圓 四分의一拂込 株式出資는 油肥聯及各道六萬五千株 硬化油同業組合五千株 三井物産三萬株이라고

會社總會一束

朝鮮運送 朝鮮運送第十二回定時總會는 二十九日 午後一時부터 同社內에서 中野社長、議長司會下에 開催하고 一、昭和十一年度下半期 諸決算案承認及 利益金處分에 關한件을 附議하야 一分增配인 六分配當案을 可決하얏다

東拓鑛業 東拓鑛業에서는 二十八日午前十一時 東京東拓本社에서 定時總會를 開催하고 當期諸決算案과 利益金處分案을 附議하얏는데 四分配當据置案을 議決하얏다

朝鮮石油 朝石定時總會는 二十九日 午前十一時부터 朝鮮取引所樓上에서 開催하고 諸決算處分案(年六分初配當)을 可決하고 賀田直治、山口誠太郎、大島英吉三氏 重任으로 決定하얏다

朝鮮의運送統制
日本內地實績본後에

國際通運社長 中野金次郎氏는 朝鮮運送總會에 出席키爲하야 二十九日午前八時着入京 朝鮮호텔에서 如左히 말하엿다

朝鮮運送의 業績은 前期보다 增收되어 一分增配인 六分으로하얏다 日本內地의 小運送統制 即日本通運株式會社의 設立은 目下 施行細則創立委員評價委員의 準備가되엇는데 九月末決算으로써 引繼하고 十月開業하게되겟고 좀늣지면 來年三月決算期頃이되겟다 統制는 國際通運에 非合同의 計算機關을 합께한것이 即新會社이오 그남어지는 大體現狀維持이다 小運送의 原價計算이라는것도 目下調査委員會에서 研究調査中인데 어려울터이다

朝鮮의 小運送統制는 日本內地의 實績을 본後하는것이 穩當하겟다 日本內地活動은 旺盛이나 今後는 勞銀問題와 物價問題가 錯綜하야 豫斷을 不許이다 最近問題는 物價對策如何가 重要한데 그對策에는 樂悲兩樣의 議論이잇다

京城穀物商 受檢組合結成

正租檢査徹底를 期하야 去五月十八日 京城에서의 穀物業者百二十餘名으로 京城穀物受檢組合을 設立하고 二十八日 評議員會를 開하고 六月一日부터 實行키로되엇는바 受檢場所는 如左하다

本部 蓬萊町一丁目京城穀物商組合 支部 淸凉里 往十里 玄石町 麻浦 漢南 東西氷庫 纛島

內外地産業統問題
人絹協定은後日로미루고 燐寸은新會社設置치안코 電球配定은當局一任

商工省近藤、小笠兩事務官의 入京에 依하야 過般來殖産當局과 燐寸、琺瑯、鐵器、人絹、電球問題에 關하야 協議中이든바 業者側과의 協議는 目下電球의 對英輸出配定만 行하고 朝鮮의 三割主張에 對하야 日本內地側은 五分을 稱하야 讓步치안허 朝鮮側은 總督府當局에 日本內地側은 商工省에 一任키로되엇는데 結局 朝鮮一割五分으로 一兩日中에 解決될것으로 豫想되며 人絹問題에 關하야서는 日本內地의 高壓的態度는 朝鮮을 無視한것이라하야 協定을 後日에 行키로 되엇다 琺瑯鐵器는 兩地共히 增産의 一途이오 日本內地側業者와도 協議하야 그根本方針을 決定할터이며 燐寸에 對하야서는 新會社를 設置치안코 漸進하게되리라한다

經濟界消息

○朝鮮電力拂込徵收=七月一日第三回拂込一株에 十二圓五十錢을 徵收키로 決定하얏는데 更히 建設資金을 要함으로 今年十一月까지에 更히 第四回拂込을 徵收하고 資本金二千萬圓全額拂込이 되리라한다

○電協朝鮮支部定時總會=日本電氣協會 朝鮮支部定時總會는 二十九日午前十一時 京電에서 開催 昭和十一年度會務報告、同會計報告、昭和十二年度豫算을 附議決定하얏다고

○京城御商聯盟會와 商工聯合會主催의 巡回見本市參加店은 定員卅店이든바 意外盛況으로 申込이 五十店에 達하얏스므로 參加店의 意向을 尊重하야 全[illegible]

急速好轉難望

鐘新拂込決定에 依한 鐘紡高가 市場을 刺戟한 一動機는 잇엇스나 沈滯를 極하야 痲痺될대로된 市場人의 神經을 刺戟하기에는 너무도 無力할뿐아니라 株式內部에 潛在하야잇다고 보이는 伸力의 萌芽가 움트러나오기에는 너무도 氣流가 惡하고 環境의 重壓이 過大하다。그러므로 보힐락말락한 伸力의 싹도 다시 자최를 감추는 光景이니 如何튼 첫재 伸力이 成長하기 爲해서는 外部의 重壓이 輕減되어야할것은 勿論 內部로서는 惡氣流도 能히 이길만한 勢力을 培養하여야할것이다。이런意味에서 本格的回復을 希望함은 지금에 잇서서는 거의 夢想에 가까우니 結局은 多少賣偏되어잇는 人氣로해서 漸次賣込行動이

株式 戾賣物로 反弛

前場鈍化 鐘新高에 刺戟되어 昨後場은 諸株가 一齊堅調를 告하엿스나 環境의 情勢는 依然 少康의 變化도 認定할수업는데 四面楚歌中에잇는 內閣의 前途는 마츰내 政變의 在進을 생각케하며 北中問題를 中心한 外交問題、物價對策、爲替管理强化等 警戒를 要하는 案件이 非一非再인데에 나 嫌忌하는바이어서 外電高에 不拘코 今朝寄付는 軟調를 呈하야 東新一圓低、鐘新一圓四低에 寄付하고 大新은 一割配當決定으로 一圓二十五錢가량의 配當落으로 九十二圓十錢이 되고、日本鋼管은 二十圓五十錢의 新株權利落으로 百一圓丁을 보엿는데 新規買物이 僅少인데다가 戾賣로보는 人氣는 依然强하야 모다 反弛裡에 軟調를 繼續하야 依然한 低迷保合으로 今週를 마치고 後場은 例休이엇다。

實物前場取引

▲昭和人絹三二、〇〇 ▲日曹鑛業三三、〇〇 ▲東滿皮革三三、〇〇 ▲鹽水港製糖新三三、〇〇 ▲足立紡三三、〇〇 ▲帝火三三、〇〇 ▲全羅鑛業三、八〇 ▲新興人絹三三、〇〇 ▲大島製鋼[illegible]

國債 買物繼續 强調

▲東京 日銀工作의 有效로 騰勢를 빚어 五分利 四分利가 모다 五錢高 佛貨도 二十五錢反撥하엿다 또 三分半貨도 强調를 示하엿는데 米貨만은 繼續하야 傍觀되고잇섯다

▲甲五分利一〇一、七〇 ▲佛貨一九六、一〇

期米 一張一弛 保合

前場反弛 今朝阪地先限은 三十四圓四十錢인 昨止同樣의 報告로 據하고 當은 一圓八十四錢인 同樣으로 中은 二圓十二錢인 一丁高 先限은 三十二圓三十錢인 一丁低로 寄付하야 反落하엿는데 實買는 依然閑散하야 阪地四十錢臺의 持續을 伴하야 三十錢을 中心으로 細刻하다가 阪地二節二十八錢으로 反落과 相俟하야 二十四錢까지 下押하더니 結局 阪地九節三十八錢으로 三十七錢에 止場하고 當限은 三十四圓十錢에 納會할듯하야 當限은 三十一圓九十錢에 納會되고 先限은 二十五錢에 止場하고 後場은 例休이엇다

當限一代記
步幅三百餘丁

今前場으로 終幕을 告한 當限은 最初二十九圓八十九錢인 一丁下觀로 發會한後 當日의 九圓八十三錢의 最低價를 示하고서 因而昇騰途程에 登하야 三十圓五十錢臺까지 反騰하든끄테 三月一日부터 發表하기 시작한 三月十日現在 日本內地 殘存米가 四千六百八十七萬餘石으로 發表前一般의 豫想보다의 減少를 示하엿슬뿐 아니라 十六日에 發表되엇든 朝鮮殘存米의 八百二萬九千餘石이란 極度悲觀의 數字를 보고 買氣稍漸滋生하야 三十二圓〇八錢까지 續騰하엿다가 利喰賣로 三十一圓四十錢臺의 反落을 告하고 中限에 入하얏는데 産地出廻는 稀薄하야 三十三圓〇六錢

市場大感

(株)……昨後場鐘新의 奔騰을 보고는 一高가잇슬것도갓드니 ▲今朝에는 다시 軟化하야 終始不冴▲雜株가 依然한 不安定狀態에잇는것을 보아 外界의 條件으로보나 아직買安心은 할수가업슬모양 ▲그러라고 별 마나、崩落이되라마는 結局賣人氣가 實하고시픈대로 賣込하고나면 市勢는 反騰할것이다 ▲그러나 不透明을 理由로賣方도 지금으로 積極方針이 아닌모양 ▲今朝에는 鐘新高로 因해 示現한 高價를 如何든 郡是活潑한 場面은 梅雨期에 明朗한太陽을 苦待하고 잇는것가래서 時期尙早……

(米)……今朝當限은 比較的平穩裡에 納會하엿다 受渡兩方이조금도서로 遜色이업는▲아무리大受米를한다할지라도 今後處分키 難할念慮는 毫無의모양▲麥作은 豐登하고 水光이 滿水함을 보면 買賣成을할수업고 空腹의 米情을 살피면 한實賣成할수업는걸▲그런데 今朝阪地當限은 强硬納會함에도 不拘하고 先限은 反히 十餘丁이나 反落此는 當先의 乘替賣?▲何如間 最高公定價格을 意外에 顧하지못하는 만큼 賣持久戰이 得意일것도 가트나 現實의 米界事情이 此를 容許할지가 問題

寸鐵

▲京城府會는 二十五日 出席議員의 不足으로 流會되고 그後 會議를 開하기로 決定하엿는데 五月二十六日 再開하야 京城府北米倉町一五七六 張祖 京城府內資町三丁目四九 尹昌壽 ... 部參加케하기로 하고 大[illegible]月十二日 出張키로되엿다.

○春繭價基本協定은 어데에든가 다 성어지 協定이 되엇는데 東京에서 『價基準高』이 서잇다고

○最近五個年의 朝鮮의 値段 二百五十圓平均으로서 日本地繭價로부터 逆算한 生産費는 百二十圓 乃至百八十圓인 즉 朝鮮의 値段은 不當히 過高라고

○ 養人까지에 要하는 共販關係附帶費가 重課되는 關係가잇는데 이런生産費를 要하다면 非能率的인 製絲라고 攻擊

○ 當局이 非能率的인 製絲를 保護하는 때문에 發達이 업고 養蠶家에게 極히 不利라고

○ 이런再檢討論은 우리가 恒常그是正을 主張해오던일……

今日의市勢【廿九日】

雜株一息狀態

連日暴落後라 今朝의 氣配는 一息모양을보여 或은 雜株도 此邊에서 底入할것이아닌가하는 觀測도不無하나 人氣는 依然安定되지안코 賣買以外에는 鈍化하는 光景이다。日曹新七十五圓丁 九州曹達四十一圓丁 日曹팔푸二十二、九日曹二十八、五等으로 日曹系諸株도 區區이기는하나 大體로 一息狀態가되고 人絹株도 昭和人絹六十二圓丁의 不變 日本紡新의 五高 人造羊毛의 四高等이 로 下支狀態이며 石川島二新도 四〇、五로七高의 底堅이엇다。其他日石新은 六八、八로七低이며 도렷지도 三十圓丁으로 一圓低인데 鹽水新五高 三菱重工新五高로 堅調이며 日本대젤은 會社側의 工作도잇서 一二、二로七高이며 第一도五高인 十三圓丁을보여 少康인데 大體保合商狀이나 買方이 戾賣를 逃避處로 待하고잇는것이 아직도 一沫의 不安이라고할수잇다

縮緬時代必至
在米現狀보면

客月下旬부터 今月初旬에 入하기까지는 阪仁의 鞘가 百五、六十丁의 縮少를 示하엿다 其際에는 朝鮮의 凶作과 더욱이 九仁管內는 尤甚한 凶作으로 産地의 出廻가 稀薄하야 滿期米 貿易氣運에 依하야 日本內地의 米界事情如何를 不拘하고 單獨의 高價를 示하엿든 關係로 上記와 如히 縮鞘를 示하엿스나 其他市場이 모다 東阪兩地를 비롯하야 接近을 讓로한 新現實物이 硬派의 利喰賣物이 現出하자 當地는 買過의 反動인만큼 又一層軟弱에 陷하야 高價에서 百二十餘丁의 瓦落으로 結局二百二十丁의 擴鞘를 示함에 至하엿다 그러나 朝鮮米의 五月一日殘存高를 보아서는 日本內地의 移出을 二百萬石으로 줄잡는다하더라도 今日부터의 六個月間 食糧問題의 窮屈을 免치못하게될모양이오 따라서 朝鮮米와 日本內地米價의 縮鞘일것을 足히짐작할수잇는즉 清算의 縮鞘時代必至를 또한可期할수잇다고 云云

仁川當限受渡內容

受渡石數 一七、五〇〇石
價格 三一、八〇
渡方 ㊃四〇〇 ㊄四五〇〇 ㊅二三〇〇 ㊇三〇〇
受方 ㉮六五〇〇 ㉯九八〇〇 ㊁二一〇〇 ⓐ二一〇〇

(以上縮鞘 … 十五錢으로 十九錢에 中止 … 三十一圓九十錢에 平穩裡에 納會되엿다)

各地當限受渡內容

	價格	石數
大阪	三三、八〇	三七、〇〇〇
東京	三四、〇〇	六七八、〇〇〇
神戶	三三、三〇	一三三、〇〇〇
下關	三三、一〇	九一、〇〇〇
名古屋	三三、四〇	三四、〇〇〇
大邱	三一、七〇	一六、〇〇〇
群山	三一、八八	一七八、〇〇〇
木浦	三一、七〇	二一一、〇〇〇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正米 不賣不買 傍觀

京城釘着 場面은 不賣不買의 無風狀態를 繼續하야 市勢는 釘着的保合이다 ㊂三等三一、八〇 四等三一、五〇 一等白米三三、〇〇

仁川不動 正租는 多少나마 取引되나 其他는 거의 賣買皆無에 가까운 場面을 繼續하야 市勢는 膠着不動이다 ㊂穀良三等三一、八〇 四等三一、五〇 銀坊主三等三一、〇〇 四等三一、七〇 多摩錦三等三一、一〇 一等白米㊂二三、四 一五 ㊁一一、九五

釜山軟化 阪地定期當限은

大邱少弛 賣方이 越月待人氣로 場面은 休商狀態로 終始되엇는데 氣配는 十錢低唱이엇다 ㊂穀良三等三一、九〇 四等三一、二〇 一等白米三三、〇〇

群山不變 月末關係로 賣方은 定期不透明으로 觀望하야 買方의 態度가 極히 消極的이어서 當用小口買가 散見되는 程度에 不過하다 ㊂銀坊主三等三一、九〇 四等三一、七〇 一等白米三三、二五

木浦傍觀 月末關係로 賣買는 全然업고 買方이 모두 動搖待로 傍觀이다 ㊂銀坊主三等三一、一〇 四等三一、八〇 一等白米三三、二五

株式

◆朝取短期取組高 / ◆朝取代引日步 / ◆東京短期 / ◆大阪短期 / ◆東京短期取組 / ◆東京現株 / ◆大阪長期 / ◆大阪短期取組

期米

◆朝取期米 / ◆朝取期米賣買高 / ◆大邱期米 / ◆釜山期米 / ◆群山期米 / ◆木浦期米 / ◆大阪期米 / ◆大阪期米取組 / ◆東京期米 / ◆日本各地期米

綿絲 棉花 人絹 生糸 砂糖

◆大阪綿絲 / ◆大阪棉花 / ◆各地人絹 / ◆橫濱生糸 / ◆大阪砂糖 / ◆東京砂糖

海外經濟 (二十八日)

銀行券 (二十八日)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對外爲替

金·銀價

鰯油粕·麥粉

◆阪神鰯粕 ◆阪神油 ◆日本麥粉市勢

正米

◆東京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市中在米高

雜穀 正租

◆大阪正米標準價 ◆京城雜穀 ◆仁川雜穀

綿絲 本絹交織人絹

◆京城綿絲布市勢 ◆京城絹布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金·銀 德 白金 高價買入 京城德力 電話本局② 3939 1572 應酬販賣 引換代金 京城府明治町 振替京城234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東 期米

朝 取 金益證券 京城府黃金町